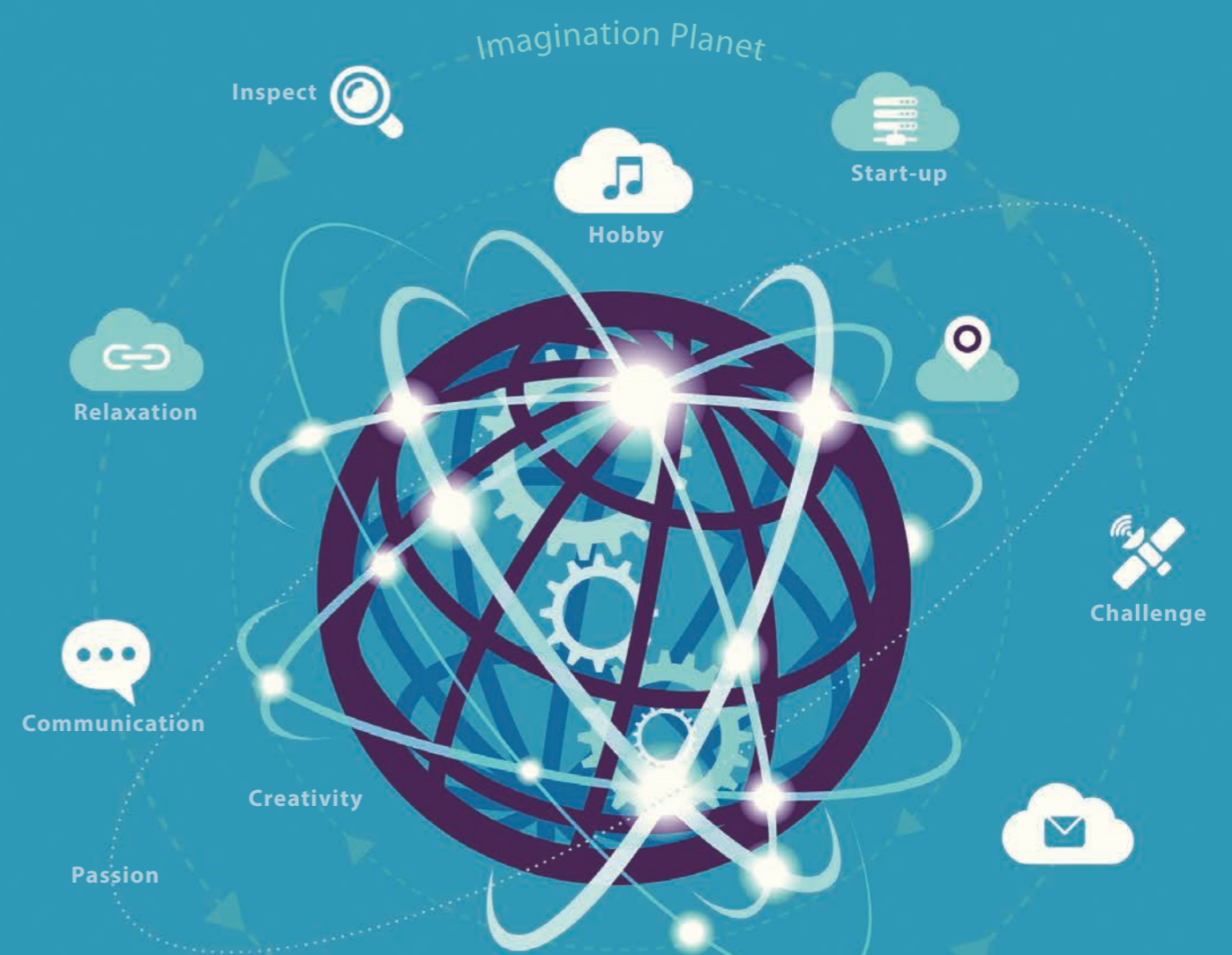




상상력 인큐베이터
한성대학교
HANSUNG UNIVERSITY
02876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116, Samseongyo-ro 16 gil,
Seongbuk-gu, Seoul, 02876, Korea
www.hansung.ac.kr



Planet Now

세상을 바꾸는 혁신적 공간,
상상관이 오픈했습니다!

Unique Planet

끊임없는 호기심과 관심으로 연구에 집중하다
-이기원 교수 인터뷰

Story Planet

전 세계에 알리는 작지만 강한 두드림
-김현구 학생의 자전거 미대륙 횡단 도전기

Focus On

2017년 학사구조 개편과
차세대 스마트학습관리시스템 블랙보드 소개

Contents

VOL. 99

HANSUNG UNIVERSITY MAGAZINE

발행인 이상한

발행일 2016년 11월 11일

발행처 한성대학교 대외홍보팀 02-760-4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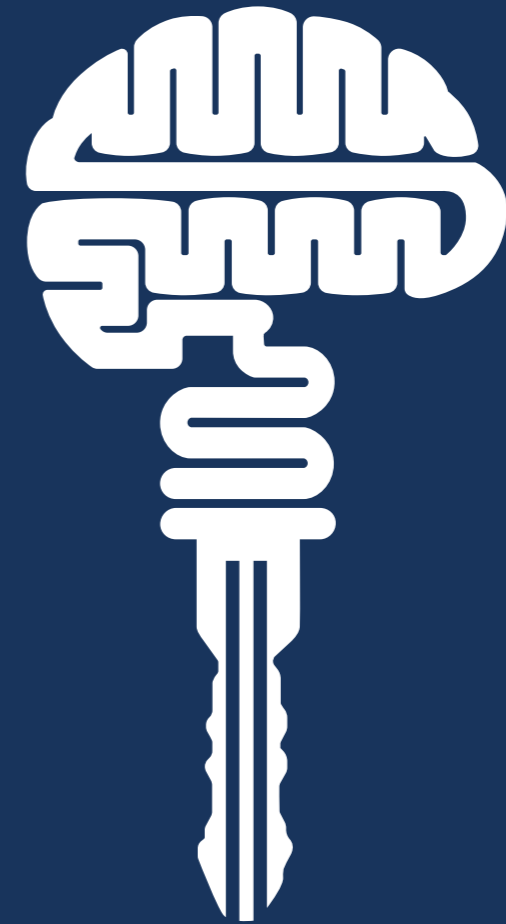
기획 · 디자인 크리에이티브락



- 04 **Planet Now**
세상을 바꾸는 혁신적 공간,
상상관이 오픈했습니다!
- 08 **Unique Planet**
끊임없는 호기심과 관심으로 연구에 집중하다
- 이기원 교수
- 12 **Story Planet**
전 세계에 알리는 작지만 강한 두드림
- 김현구 학생의 자전거 미대륙 횡단 도전기
- 16 **국경 없는 상상**
글로벌 마인드로 무장,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다
- 20 **Planet Together**
한성대 공동체문화 정착 캠페인,
High Hi Hansung

- 24 **상상레시피**
IT TREND DICTIONARY
- 26 **리드하는 상상**
우리 것을 지키고 함께 소통하고자 노력하는
열정의 예인(藝人)
- 30 **함께 나누는 상상**
나의 작은 재능이 주변을 아름답게 꽃피우다
- 34 **도전하는 상상**
내 인생의 지도를 개척하다
- 38 **Focus ON**
- 2017년 학사구조 개편
- 차세대 스마트 학습관리시스템, '블랙보드'

- 42 **With Hansung**
- 젊은 세대들에게 나라사랑을 알리는 영원한 멘토
- 늘 푸르른 소나무의 기상을 닮은 청춘들이길
- 46 **Hansung News**
- 50 **한성 서포터스**
음식 한 그릇에 담긴 소박한 진심
성한가든 / 진아춘 / 손가네
- 54 **발전기금**
- 56 **모집요강**
2017학년도 한성대학교 정시 모집요강



세상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행성, 상상 플래닛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지식에는 한계가 있지만, 상상력은 이 세계를 몇 바퀴 돌 수 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세상의 고정관념과 선입견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상상한다면
우리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 상상 이노베이터들의 신나는 행성,
한계가 없는 상상 플래닛 한성대학교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혁신적 공간, 상상관이 오픈했습니다!

일상의 사소한 부분부터 비즈니스와 예술의 카테고리까지
상상력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상상력은 더 이상 멈춰있는 명사가 아닙니다.
열정과 유머와 즐거움이 살아 숨쉬는,
움직이는 '동사' 가 되어야만 합니다.

머릿속에만 있는 '상상력' 은 무용지물입니다.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상상관' 에서
'상상력' 의 디테일을 배워봅시다.

“

상상관, 세상을 변화시킬 놀라운 상상력의 집합체!

나는 지식보다 상상력이 더 중요함을 믿는다.
신화가 역사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음을 믿는다.
꿈이 현실보다 더 강력하며
희망이 항상 어려움을 극복해 준다고 믿는다.
〈로봇트 풀럼, '내인생의 여섯 가지 신조' 중에서〉

”



상상력의 디테일이 살아있는 공간, 상상관!



한성인의 정성과 소망이 가득 담긴 상상관이 완공됐습니다. 상업시설보다는 학생 교육, 체육시설, 대규모 주차시설 등 맞춤형 공간 확보에 집중한 상상관은 지하 2층과 지상 12층 연면적 2만 2872㎡로 차량 255대를 주차할 수 있는 지하 주차장도 조성됐습니다. 이 지하주차장 확보로 학교 지상에 차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캠퍼스를 구현하게 됐습니다.



또한 강의실, 컴퓨터실, 세미나실 등 교육 공간 59 곳을 비롯해 창업 라운지·스터디 라운지 등 맞춤형 시설이 마련됐고 지하 2층에는 체육관이, 지상 외부 공간에는 풋살·테니스장이 들어서 학생들의 체력 단련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상상관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공간 수요에 대한 대응이 가능해 교육 서비스의 수준이 한층 향상되고 학교의 전체적인 경쟁력 역시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마련된 체육관에서는 다양한 스포츠 경기가 가능해, 에너지를 마음껏 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용 컴퓨터가 설치된 계단식 강의실은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휴식과 공부가 모두 가능한 라운지는 카페가 부럽지 않은 분위기와 편안함으로 학생들에게 사랑 받고 있습니다. 특히, 12층 야외 휴식 공간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시간과 계절에 따라 다른 색깔과 느낌을 전해주어 벌써 전망 좋은 명소가 되었습니다.

끊임없는 호기심과 관심으로 연구에 집중하다

이기원 교수 / 전자정보공학과



곡식은 하나를 심어서 하나를 거두고, 나무는 하나를 심어서 열을 거두지만, 하나를 심어 백을 거두는 것이 사람이라고 했다. 사람을 키워내는 일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말이다. 함께 연구하고 공부한 학생들이 졸업하고 원하는 직장에 취업해 지내는 모습을 볼 때 가르치는 이의 한 사람으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는 사람. 그가 바로 전자정보공학과 이기원 교수다. 그는 지난 6월 원격탐사분야의 불모지인 대만에 정식 학회가 설립,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언을 아끼지 않은 공을 인정받아 2016 ICEO&SI 국제학술대회에서 공로상을 수상했고, 지난 9월 2일에는 그의 연구팀이 개발에 주력해 온 '모바일 웹 매핑 솔루션 2.0'이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버전 3.5 상호 호환성 인증을 획득하여 한성대의 위상을 드높이는 성과를 이뤄냈다. 국내 대학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 연구 성과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이기원 교수를 만나 끊임없는 호기심으로 일궈낸 오랜 연구 활동의 보람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Q '모바일 웹 매핑 솔루션 2.0'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A 통상 어떤 연구를 시작할 때 정해진 날짜가 있어 그때부터 시작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모바일 웹 매핑 솔루션'의 개발은 대략 3년 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간 관심을 가지고 관련 연구나 그동안 발표된 자료를 조사하고 이 분야에 대한 기술 세미나 등에 참석해 보니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침 국토연구원에서 주관하는 국가 기술개발사업에 공동연구책임자로 참여하면서 이참에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술인증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인증 받은 소프트웨어 목록을 보니 대학에서는 받은 경우가 한 건도 없었는데, 전국에 수많은 대학이 있고 거의 모든 대학에 컴퓨터 관련 학과가 무수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 건도 없다는 것이 본격적으로 개발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무엇보다 같이 연구하는 대학원생들이 이 기술 내용을 잘 익히면 취업에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도 중요한 연구 동기의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약 6개월 정도 기술 내용을 조사하고 설계 작업하고 나니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여 그동안 개발한 내용을 '모바일 웹 매핑 솔루션'이라는 이름으로 묶어서 2015년 여름에 정식으로 인증을 받았고(버전 1.0),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가 업그레이드됨에 따라 새로운 기능이 더해져 올해 버전을 2.0으로 해서 새로 인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Q '모바일 웹 매핑 솔루션 2.0'이 국내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버전 3.5 상호 호환성 인증을 획득하게 되었는데 이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는 우리나라에서만 적용되는 표준으로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업에서 사용하는 공공 목적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필요한 기반 환경과 공통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프로그램을 미리 만들어 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수많은 정부 기관들이 모두 다른 환경이나 특정 회사의 제품으로 각자의 시스템을 만들면 나중에 유지 보수라든지, 정보 호환성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객관적으로 보면 제약사항도 있고 개발자의 창의성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의 고유 기술력을 묻히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가 지난 2008년부터 개발, 보급되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학교에서는 실제 시장에 내용을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이번 솔루션 연구를 위해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테스트 검사를 하고 문제점을 찾아 수정하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했던 만큼 인증을 받고 나니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무사히 마무리했다는 생각이 큼니다. '대학 최초'라는 타이틀은 그냥 덤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만족하



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팀은 이 솔루션을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과 접목시키는 연구를 구상하고 일부 진행하고 있는데, 마침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자체도 클라우드와 연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과 ‘클라우드라는 컴퓨팅 환경에서 위성영상정보를 처리하는 웹 서비스 개발’이라는 제목의 연구를 진행했는데, 현재 개발했던 성과물은 항공 우주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위성정보 활용지원 서비스’라는 시스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기술은 미국의 NASA나 일본의 JAXA에서도 아직 지원하지 않고 있는 인터넷 웹 기반의 서비스로,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보람이 있었던 연구 성과라 자부하고 있습니다.

Q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 출발해 한성대에 몸담은 지 16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연구원이자 교수로서 보람은 무엇이고 또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저와 같이 공부한 친구들이 직장에 취업해 잘 지내는 모습을 볼 때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2년 전 인증을 받을 당시, 연구 개발에 참여한 학생들 이름을 함께 넣고 싶은 마음에 ‘공간정보웹기술연구실’이라는 팀명으로 참여했고, 현재 인증 받은 소프트웨어의 사용자 매뉴얼에 학생들 모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만큼 취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큼니다. 제가 느끼는 애로사항이라면 우수한 인력이

줄어든다는 점을 들 수 있겠지요. 소프트웨어 개발은 사용자에게는 드러나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 상당히 세심한 부분까지 다루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학들은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 소홀한 면이 있어서 대부분 산업계에 넘기려는 경향이 있지요. 공공 웹 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에 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 90여 개 가운데 대학에서 참여한 경우는 우리 대학이 처음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저는 학생들과 함께한 이번 연구과제의 모토를 기술적인 난이도를 떠나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을 해보자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당장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들고,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와 같이 현재 적용되고 있는 분야에 기여하는 연구를 하는 것이 대학마다 강조하는 우수한 성과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Q 평소 생각하는 ‘연구하는 이’가 갖춰야 할 덕목과 책임은 무엇인지요.

A 우선은 지적인 호기심이 필요합니다. 관심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자기 분야나 자기 일이 아니더라도 여러 방면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있으면 좋겠어요. 정보가 넘치고 기술이 급변하는 시대에는 사실 가만히 있어도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 차고 넘칩니다. 버려야 채워지는데

너무 채워지기만 하려고 하니 머리가 복잡하고 산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중에서 필요한 것을 고를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닐까요? 또 하나 필요한 것은 깊이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요즘처럼 극단적인 효율성을 강요하는 세태에는 쉽지 않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무언가 알고 싶거나 무슨 문제를 풀어야 하면 바로 스마트폰에서 답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시간을 낭비하거나 처음 문제에서 벗어나 옆길로 새버리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런 만큼 스스로가 중심을 잡고 자기 생각을 발전시켜나가는 연습을 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연구하고 공부하는 주제에 대한 정답이 한가지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단 한가지의 정답이 있는 경우라도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요즘은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계속 집중하다보면 또 다른 재미있는 연구 주제로 이어지고 이런 문제를 하나씩 풀다보면 진짜 연구하는 맛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연구의 재미를 우리 학생들이 많이 경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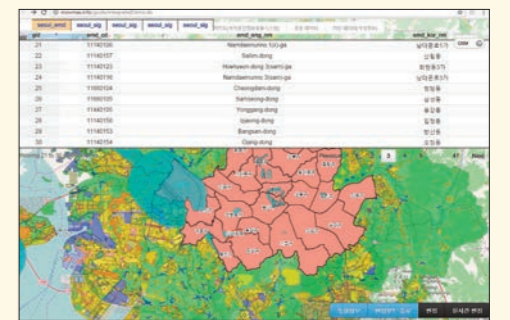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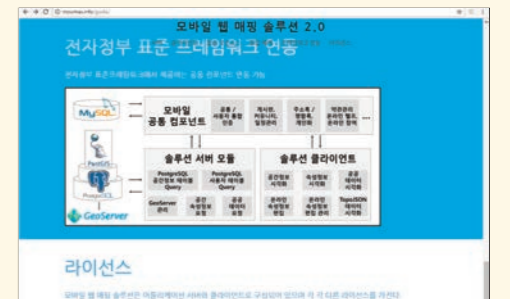
Q 마지막으로 한성인들에게 격려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A 우리 대학은 규모가 작고, 공대 또한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습다. 그래서 산업계 다양한 분야에 선후배가 많은 다른 대학에 비하여 위축되는 마음을 가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사회에서 받는 평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제대로 공부해서 자기 자리를 찾는 졸업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취업률 숫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우리 연구실 졸업생들이 취업한 중소기업 대표와 사석에서 만난 일이 있었는데, 그 분이 새로 입사한 한성대 출신자가 실력도 있고 회사에 적응을 잘해서 아주 만족해하며 ‘대학원 졸업생 취업계약’을 하자고 제의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경우가 다른 교수님이나 다른 연구실에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한성대 재학생 여러분들 같이 힘내고 파이팅 합시다!

‘모바일 웹 매핑 솔루션 2.0’

모바일 환경에서 공간정보와 공공정보 콘텐츠의 편집과 시각화 기능을 제공하는 개발자용 도구 SW. 모바일 웹 매핑 솔루션 2.0은 한글이나 파워 포인트처럼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개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소스 코드 도구이다. 따라서 공공 목적의 정보시스템 개발을 하려는 회사들 가운데 스마트폰 모바일 환경에서 구축하는 서비스를 개발한다거나, 위치정보를 포함하는 지도 정보를 표현한다거나, 최근 관공서에서 공개하는 공개 데이터를 이용해야 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회사에 필요한 솔루션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기원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모바일 웹 매핑 솔루션’은 지난해 1건, 올해 1건 등 총 2건의 기술이전계약이 성사됐는데, 당초에는 개발 성과물을 오픈소스로 모두 공개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다가 2015년에 인증을 받은 후 한 회사에서 유상으로 기술 이전을 제의함에 따라 기술의 가치를 알아준 것이 고맙기도 해서 소액의 비용으로 기술이전 계약을 했고, 올해 초에도 같은 조건으로 새로운 회사에게 기술이전을 한 바 있다. 기업체의 요청으로 전체 소스 코드의 공개 SW는 잠시 유보하고 있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공개 SW로 할 예정이다.



12.

Story Planet

위안부, 인권문제를 전 세계에 알리는 작지만 강한 두드림

김현구 학우의 자전거 미대륙 횡단 도전기

미국의 환경학자인 존 라이언은 지구를 살리는데 꼭 필요한 첫 번째 물건으로 자전거를 꼽았다. 유한한 지구의 자원을 황폐화시키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동력으로 최대의 효율성을 발휘하는 '착한 교통수단' 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전거 두 바퀴에 담긴 소중한 가치 위에 인권문제를 전 세계에 알린다는 묵직한 책임감을 실어 미국 대륙 6,000km를 횡단한 한성인이 있다. 정보통신공학과 11학번 김현구 학우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가벼우나 그 끝은 큰 의미가 담겼으리니

인생은 예측불허의 연속, 그래서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했던가. 그저 자전거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작은 일'이 전 세계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고 오는 '큰 일'로 번져갈 줄은 본인도 몰랐더니 인생 참 모를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84일 동안 자전거로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대장정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김현구 학우는 전보다 한층 더 단단해지고 건강해진 모습으로 '성장' 해 있었다. "3학년 2학기 때 IPP형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면서 회사에서 자기계발 시간을 많이 주셨어요. 덕분에 혼자 여행을 떠나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때 기차 안에서 우연히 'CEO 국토대장정'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다가 아, 자전거로 뭔가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TAP 운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TAP(Triple A Project)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범죄를 인정하고(Admit), 사과(Apologize)한 뒤 동행해야한다(Accom-

pany)는 뜻을 담아 자전거로 미국 대륙을 횡단하며 전 세계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는 프로젝트. 독도경비대에 있었던 대학생 두 친구가 위안부 문제를 알리기 위해 자전거로 미국 대륙을 횡단했다는 기사를 읽던 김현구 학우는 '누군가 이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이 가슴에 와 닿아 2기 프로젝트에 참여할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자전거를 타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저와는 달리 같이 참여하기로 한 두 친구는 평소 위안부 문제나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전까지 위안부 문제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나눴의 집을 찾아가 할머니들도 뵈고, 또 안인권 소장님께서 '우리들이 못하는 일을 대신 해줘서 고맙다'고 격려해주셔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 큰 책임감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일이 무거운 책임으로 다가오면서 조금은 부담감 같은 것을 느꼈을 법도 한데, 김현



구 학우는 좋아하는 일을 찾다 보니 관심이 생기고 또 관심이 가는 만큼 그 부담까지도 기꺼이 즐기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다고 한다.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위안부 문제를 알린다는 목적인 사명감을 안고 출발한 김현구 학우의 84일 대장정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청년, 미 대륙 한복판에서 위안부 문제를 외치다

TAP운동의 취지는 미 대륙 6,000km를 자전거로 달리는 과정에서 만나는 모든 세계인에게 위안부 할머니의 고통과 실상을 알리는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글렌데일에 세워진 소녀상 앞에서 출정식을 마친 TAP 2기 3인방은 LA일본총영사관 앞에서 수요 집회에 참석해 한국에서 준비해 간 선언문을 낭독하며 위안부에 관한 역사적 사실과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6월 27일 로스앤젤레스를 출발해 라스베이거스, 덴버, 시카고, 워싱턴 D.C.를 거쳐 9월 4일 뉴욕 펠팍 위안부 기립비에 도착하기까지 84일 동안 페이스북 북을 통해 동영상과 사진으로 우리 활동을 알렸고, 미국 여러 도시의 지역 언론과도 인터뷰를 했어요. 그동안 만나본 미국인들 가운데 99.9%는 위안부 문제를 처음 들어봤지만,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은 뒤에는 다들 크게 공감을 하고, 또 멋진 일을 한다고 응원해줘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젊은 패기와 의지로 사기충전한 이들 3인방이니 머뭇대거나

주저할 일은 없었을 터. 자전거를 타고 가다 들리게 된 작은 마을의 언론사를 찾아가 무턱대고 인터뷰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한다. 김현구 학우는 위안부에 대한 기사를 실어주는 것을 선뜻 허락한 지역 신문들, 교회 예배 시간을 할애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준 목사님, 이밖에도 자신들을 응원하고 격려해 준 고마운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큰 감동이었다고 한다.

미국인들의 대부분 홀로코스트와 같은 유대인 대학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 자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들 깜짝 놀라며 안타까워하는 분위기였다는 김현구 학우는 특히 ‘자전거’라는 공통의 관심사가 있었기에 좀 더 용이하게 미국 시민들 사이에 뛰어 들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미국사회와 같이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는 나라에서는 자기와 공통된 관심사가 아니면 거들떠보지도 않는 경향이 있는 만큼 이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자전거라는 도구가 큰 도움이 된 것 같다는 것이 그의 생각. 아무래도 더운 날씨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세 명의 동양남성이 미국인들의 눈에 들어왔고, 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대륙을 횡단하는 이유가 궁금해 다가왔다가 이들이 알려주는 위안부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위안부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피해자의 국적을 뛰어넘어 세계시민의 관점에서 인권 문제로 접근했으면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한일 양국 간의 문제로 생각하

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보다는 지구촌 사회 세계시민의 일원으로서 전쟁여성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방향의 접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두 나라만의 문제로 범위를 좁혀 세계인의 관심을 줄이자는 것이 일본 정부의 속셈인 만큼 전쟁여성 인권문제로 다가가 많은 나라에서도 관심을 가지도록 크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랜 기간 줄다리를 이어 온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하진 못하겠지만, 적어도 인권 문제를 세계에 알리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김현구 학우가 참여한 TAP운동은 소중한 가치를 세상에 알리는, 작지만 강한 두드림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하고 싶은 일은 반드시 해내고야 마는 것이 젊은 특권

84일 동안 자전거 하나에 의지해 거대한 미 대륙을 건너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김현구 학우는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넘어가는 사막에서 물이 모자라 탈수 현상을 겪기도 했고 자전거로 달릴 수 없는 모래바다 앞에서 망연자실하기도 했다. 휴대전화가 터지지 않는 낯선 땅에서 길을 잃고 헤매기를 수차례, 일주일 내내 비를 맞으며 미친 듯이 자전거 페달을 밟다가 기진맥진 고갈된 체력으로 큰 산맥과 마주했을 때는 그냥 죽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다. 육체적으로 무너지니 약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다 말하는 김현구 학우. “체력적으로 힘들다 보니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후회

를 하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책임감을 덜 가진 상태로 출발했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인권문제를 위해 인생을 바치는 분들을 만나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볍게 생각할 것은 아니라는 반성을 하게 되었죠. 그 덕분에 마지막까지 전력을 다해 마무리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버지니아주 의회마크 김 하원의원, 메릴랜드마크 장 하원의원, 필리델피아 헬렌 김 시의원, 데이비드 오 시의원 등 유명 인사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 나누며 참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왔다는 김현구 학우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큰 깨달음을 준 TAP운동에 참여한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지며 자신에게는 소중한 자산으로 남을 것이라 말한다.

“4학년이면 취업 준비하기도 바쁜 시기에 왜 이런 일을 하는냐는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보니 지금 당장 너무 취업에 대해 압박을 받지 말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든 최선을 다한다면 분명 기회는 올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해내고야 마는 것은 젊은 세대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일 터. 이 프로젝트가 아니었다면 무모하지만 의미 있는 도전 속에서 만났던 좋은 분들, 특별한 경험을 어디서도 할 수 없었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에 감사한 마음이라는 김현구 학우. 그의 바람처럼 84일의 도전기가 분명 성장의 시간이 되어주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16.

국경 없는 상상

글로벌 마인드로 무장,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다

국경 없는 다양한 상상력을 체험하며 글로벌 마인드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나만의 지도!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는 것은 바로 '우리는 모두 지구인'이라는 단순한 진리!

한성대학교 해외봉사단

한성대학교는 재학생 중 선발된 20여 명을 매년 동·하계 방학기간을 이용해 글로벌 마인드를 갖추고, 사회에 공헌하는 인재로 만들고자 해외봉사단을 파견하고 있다. 봉사단은 구성원의 전공과 연계해 △한국어 △태권도 △사물놀이 등 교육 봉사과 현지 학교 시설을 수리하고 도색하는 노력 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음악회와 K팝 공연 등 문화 교류 행사도 진행한다. 올해 21기를 맞이하는 한성대학교 해외봉사단은 2개팀으로 나뉘어 7월 1일부터 20일까지 카자흐스탄 우슈토베 고려인 마을 초등학교, 7월 3일부터 20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 국립 58번 학교를 방문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사람과 사람사이, 진정한 교감을 배우다

21기 몽골 해외봉사단 참여 | 글. 구본우 / 컴퓨터공학부 13학번

이번 해외봉사단에 지원하게 된 것은 어렸을 때 태국과 캄보디아에서 지냈던 경험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역사탐방을 목적으로 태국을 경유하여 캄보디아로 간적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막연하게 배웠던 것과 달리 태국과 캄보디아의 풍경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잘사는 사람은 고층빌딩에 살며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데 반해, 빈민층은 판자촌에 살며 학교를 가야하는 나이임에도 생계를 위해 관광객들에게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었죠. 더 가슴 아픈 것은 머무를 땅조차 없어 상상가옥에 거주하며 살아가는 캄보디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한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는 것에 그쳤지만 성인이 된 지금, 도움의 손길을 원하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싶었습니다.

왼쪽 가슴에 대한민국 국기를 달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는 참 많습니다. 사실 NGO 단체나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그 봉사활동과 한성대학교에서 주체하는 봉사활동의 가장 큰 차이는 한국의 문화와 놀이, 언어를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현지에 가서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것도 좋지만 해외 아이들의 가슴에 대한민국을 새기는 가장 좋은 바늘과 실은 저희가 했던 해외봉사 아니겠습니까. 준비기간도 오래 걸리고 참가자 전원 봉사에 대한 열정이 필요한 만큼, 다른 단체에서 쉽게 못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특별함이 한성대학교 해외봉사단에 지원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사실 해외봉사를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 힘들었음을 고백합니다. 매일 학교에 나와 교육봉사와 문화공연을 준비하는 것부터 기자재 담당과 팀장의 일까지 겸하다보니 정말 이번 학기의 제 머릿속에는 해외봉사 준비밖에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마 다른 친구들도 저와 마찬가지로였을 거예요. 현지 58번 학교에서의 생활 역시 편했던 건 아닙니다. 열음에 담겨있던 것 마냥 너무 차가웠던 수돗물과 침낭 하나로 낮과 밤의 온도차가 심한 몽골 날씨 버티기, 매일 교육준비와 함께 세끼의 식사 만들어 먹기 등, 여러 가지로 현지 생활이

열악했습니다. 다음날 식사 준비를 위해 새벽 3시가 되어야 잔적도 있거든요. 녹내가 진동하는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는 등의 고초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몽골 58번 학교 숙소 생활이 재미있었던 것은 지켜올 정도로 하루 종일 붙어있던 21기 친구들과 한없이 순수한 아이들 덕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수업자료와 문화공연을 보며 웃는 현지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그동안 쌓여왔던 피곤함이 녹아내리고 뿌듯함이란 씩이 티워 올랐던 거 같아요.

몽골에서의 봉사를 마치고 나니, 개인적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봉사에 대한 정의가 달라졌습니다. 나 자신을 희생하며 남을 도와주는 행위를 봉사라 정의했는데 이런 표면적 측면을 넘어 사람과 사람의 교감과 관계들 또한 봉사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번 해외봉사 경험을 통해 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새삼 더 깨닫게 됐습니다. 하지만 미약한 재능일지라도 한줄기의 빛조차 들지 않는 곳에서는 그 어느 빛보다 밝게 비취짐을 경험했습니다. 지금의 겸허한 마음을 잊지 않고 이 길을 계속 걸어간다면, 언젠가 세상 그 누구도 상상 못한 원석으로 빛나고 있지 않을까요? 변화의 과정에서 있는 제 모습, 이제 시작이니 계속 지켜봐 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눈빛과 마주하다

21기 카자흐스탄 해외봉사단 참여 | 글. 지희진 / 경영학부 14학번

올해 2016년의 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무더웠습니다. 저는 그 무더위보다 더 큰 열정으로 카자흐스탄에서 봉사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간 곳은 한국에서 백배비만 15만원이 넘게 나오는 카자흐스탄 우시토베의 제르진스키 학교였습니다. 화장실은 집 밖에 있고, 그 흔한 와이파이도 학교에만 있는 시골 중의 시골이었습니다. 그곳에 마음을 주러 다녀온 저는 더 큰 마음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처음 해외봉사단에 지원할 때는 지난겨울 키르기스스탄에 다녀온 그 울림이 그리워졌습니다. 올해 1월달, 저는 키르기스스탄의 이바노프카 마을로 7박 9일의 짧은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그 때의 그 울림과 설렘이 너무 강렬해서 학교에 모집공지가 올라오자마자 바로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준비 과정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해외봉사는 크게 문화공연과 교육봉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했던 문화공연은 k-pop, 부채춤, 태권도, 연극 그리고 치어리딩이었습니다. 20명의 단원들 모두 공연에 참여해 본인들의 시간을 쪼개가며 연습했습니다. 저는 여자 팀장으로 교육봉사의 한국어, 과학, 음악, 미술, 체육 이 5개 교과목의 10일 교육 계획안을 모두 총괄했습니다. 50개가 되는 계획안을 책임진다는 것은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끙끙거릴 때, 단원들 모두가 도와주었습니다. 혼자라면 할 수 없었던 부분까지 아이디어를 보태주고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는 그렇게 한 팀이 되어 험난하게 교육봉사를 준비했습니다.

약 10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우리는 7월 1일 드디어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했습니다. 장대비가 내려 비행기가 뜰 수 있을까? 하는 작은 걱정과 말이 통하지 않는 아이들과 수업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긴장이 섞인 그 묘한 설렘을 가지고 말입니다. 비행시간은 총 6시간 30분. 험난한 난기류를 지나 우리는 무사히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도착했습니다. 우리의 봉사지역은 우쉬토베로 알마티에서 차로 6시간을 달리면 있는 곳입니다. 우쉬토베에 있는 작은 시골학교인 제르진스키 학교에서 100여 명의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

다. 처음 차를 타고 그곳에 내렸을 때 우리를 환영해주던 그 아이들의 눈망울이 너무 맑았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기는 그 더운 곳에서 우리 단원들 모두 자기보다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람이 그 무엇보다 더 빛날 수 있다는 것을 그곳에서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준비한 것과 실제로 수업을 하는 것은 많이 달랐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장벽인지 간과했던 것입니다. 자리에 앉으라는 단순한 말을 하기 위해서도 통역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했고, 쉬는 시간에 다가오는 아이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깍 질라?' 라는 오늘 기분을 물어보면 대답조차 잘 알아듣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이 아닌 눈으로, 몸짓으로 우리의 의견을 전달했고, 아이들도 우리와 점점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봉사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그날, 우리의 이별을 슬퍼한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습니다. 아이들과 우리는 서로 헤어지기 아쉬워 그 비를 맞으며, 눈물에 겨운 이별을 했습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했던 엘미라가 조심스레 통역선생님의 손을 잡고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세 마디를 내게 전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맙어요. 한국에 가서 아프지 말아요. 선생님을 평생 기억할게요." 작은 아이의 진심이 다가와 내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고 행복한 사람인지 다시금 느꼈습니다. 임용고시의 압박과 현실의 무거움은 잠시 내려두고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온 것만으로 참 행복했습니다. 마치 어렸을 때로 돌아가 어린아이처럼 여유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의 눈에 비친 나를 보면서 앞으로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의 물음에 내 나름의 답을 찾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곳이 참 그립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봉사하는 기간 동안 묵묵히 뒤에서 도와주신 이재석 단장님, 김기호 차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아띠아띠 모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함께’하는 것은 분명 ‘혼자’보다 좋은 것

한성대 공동체문화 정착 캠페인,
High Hi Hansung

혼밥, 혼술이 유행인 시대라지만, 그래도 혼자보다는 여럿이 있을 때 힘이 나는 법. 요즘 대학가는 개인화, 취업난 등으로 인해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기보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문화가 팽배해 있다. 이에 우리 학교는 소통의 부재, 고립, 외로움 등 학생들의 고민을 해소해보고자 색다른 이벤트를 마련했다. 한성대 공동체문화 정착 캠페인, ‘High Hi Hansung’을 진행한 학생상담센터 장동진 실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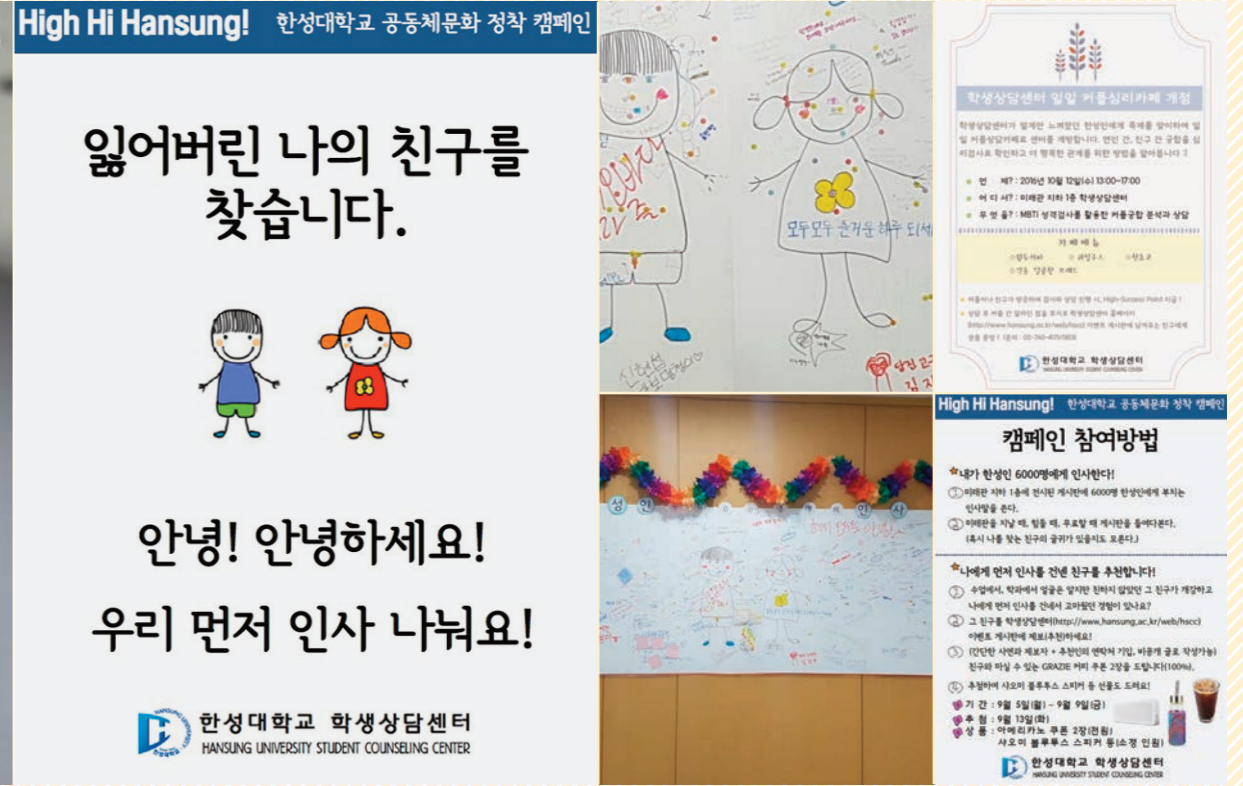


서로 인사하고 환대하는 공동체를 만들자

새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기대감, 설렘보다는 걱정부터 앞서는 학우들이 우리 가까이 있다. 새로운 수업, 처음 만나는 친구들이다 보니 말 걸기가 어색하고 힘들게 느껴져 결국 한 학기 내내 홀로 떠도는 외딴 섬처럼 고립감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누군가 먼저 인사를 건넨다면 이보다 더 반가운 일은 없을 터. 학생상담센터에서 지난 9월 5일부터 9일까지 공동체문화 정착 캠페인 ‘High Hi Hansung’을 진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학생상담센터는 한성인들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열린 공간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센터를 찾아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었죠. 그동안 상담을 통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느끼는 제일 큰 문제가 외로움과 소속되지 못한 것에서 오는 불안감이라는 점을 인식해 한성인들의 심리건강, 정신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캠페인을 벌이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공동체문화중진 캠페인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장동진 실장은 학생상담센터를 찾아오는 학생들의 고민을 상담하고 해결해주는 역할도 필요하지만, 학교 학생 전체를 아우르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일 또한 중요하다고 말한다. 학생상담센터에서 이번 캠페인을 기획하게 된 취지도 서로 인사하고 같이 환대해주고 밝은 모습으로 먼저 인사하는 문화가 정착되면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형성돼 학생들의 정신건강에도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 그런 만큼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자신을 돌보고 타인을 돌보는 가운데 서로 소통하는 문화가 자리잡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생활, 결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

지난 9월 5일부터 9일까지 열린 한성대 공동체문화 정착 캠페인 ‘High Hi Hansung’은 미래관 로비에 ‘잃어버린 친구를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대형 게시판을 설치해 연락하지 못했던 학우들에게 메시지를 작성해 전달하고, 자신에게 먼저 다가와 관심을 보이고 인사를 건넨 학우를 추천하는 사연을 올리는 이벤트 등 두 가지 버전으로 진행됐다. 게시판의 경우, 잠시 소원해진 친구에게 못 다한 말을 전하는 대화의 장으로 큰 호응을 얻었고, 무엇보다 누군가에게 손글씨로 마음을 전하는 일이 색다른 경험이어서 신선했다는 반응이다.

“메시지를 남기고 여기에 댓글을 달면서 게시판을 읽는 내내 마음이 따뜻해졌다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공동체에 소속되지 못하고 어려워할 때 먼저 다가와 인사하고 말 걸어준 친구 덕분에 큰 도움이 되었다, 혼자만 다니던 자신에게 얼굴만 알고 지내던 친구가 반갑게 인사해줘서 좋았다는 등 학생들의 진솔한 사연을 읽으며 캠페인을 준비한 한 사람으로서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장동진 실장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캠페인에 참여한 학생들의 관심이 높았고, 내용 자체도 진정성이 느껴져 보람이 있었다고 평가한다. 무엇보다 서로 인사하고 먼저 말 건네는 가운데 공동체가 다 같이 좋아지는 것이라는 캠페인 본연의 취지에 학생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혼자가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

한성대 공동체문화 정착 캠페인 'High Hi Han-sung'을 계기로 알게 된 사실은 우리 학우들은 작은 일에도 큰 감동을 느낄 줄 안다는 것이다. 우리 속에 섞이지 못해 어색하고 우물쭈물해 하고 있는 자신에게 반갑게 인사하고 함께 밥 먹으러 가자고 말하는 일들은 어쩌면 사소하지만, 그 마음이 와 닿는 당사자에게는 큰 힘으로 작용한다. 이런 작은 배려들을 통해 친구의 고마움을 다시금 깨달았다는 두 학우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대담 참석자

장동진 실장 (학생상담센터, 사진 가운데)

김수민 학우(산업경영공학과 13학번, 사진 오른쪽)
“학교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관심이 많아 이번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또래상담사로 활동하다 보니 학생상담센터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고 자부합니다.”

이다빈 학우(패션디자인과 12학번, 사진 왼쪽)
“또래상담사에 대해 궁금했었는데 정말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말을 들으니 신기하고 새롭네요. 언제 기회가 닿으면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김수민 : 남학생들은 입대 시기가 다르다보니 복학도 제각각이어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 연결고리가 끊어지기 쉬워요. 저 같은 경우는 동기들이 다 군대에 있어서 혼자 수업을 듣고 밥도 홀로 먹어야할 상황이었는데, 친한 동기가 복학하자마자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들릴지 몰라도 ‘형, 저 복학했어요, 같이 밥 먹어요’란 말이 제게는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그 친구도 외로움에 저를 찾을 수도 있었겠지만 먼저 찾아줬다는 것이 정말 고마워서 사연을 올리게 되었어요.

이다빈 : 저는 1학년 마치고 휴학을 하다 보니 복학했을 때 동기들이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과 후배들이 있어도 제가 휴학을 했을 때 입학했기 때문에 아예 모르는 사이라 굳이 먼저 다가서기가 좀 뻘컘하다고 해야 하나 좀 어려웠어요. 3년 정도를 혼자 다녔는데 수업을 같이 들으며 얼굴만 알고 지내던 한 학년 후배가 ‘언니 안녕하세요’ 라며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걸 계기로 정말 친해졌고 지금도 잘 지내고 있어요. 그때 받았던 고마운 마음을 사연에 올렸는데 상품으로 스피커를 주셔서 축제 기간 동안 다과회를 여는 그 후배에게 선물했죠. 덕분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해줘서 무척 기뻐했습니다.

장동진 실장 : 요즘 대학생들은 관계 맺기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합니다. 조별 발표가 많아지면서 대인관계가 곧 학점으로 연결되다 보니 모임 안에서 자발성과 주도성을 가지지 못하는 친구들은 고립되고 낙오되는 기분이 들어 더욱 어려움을 느끼게 되지요. 학과 내에서 소속감을 느끼기 어려워 동아리를 들어가지만 거기서도 대인관계가 어려우면 적응하기 쉽지 않아요. 학생상담센터에서도 대인관계에 대한 상담을 많이 하고 해결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두 학생들의 경험을 들으니 우리 센터가 학생들에게 조금은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아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수민 : 3학년 올라오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도 많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상담에 관심이 많아 학생상담센터에서 운영하는 또래상담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전문상담지식은 부족하지만 친구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공감하고, 친구들 또한 또래친구에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말해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다빈 :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기 위해 제 사연을 쓰면서 고마운 후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평소 학생상담센터 앞을 지나다니면서 과연 학생들이 찾아올까 무슨 고민을 상담할까 궁금하기도 했는데 누구나 와도 되는 공간이라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어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 너무 사소한 일을 고민거리로 찾아오면 안 될 것 같아 뒤돌아오곤 했었거든요.

장동진 실장 : 지난해 오픈한 이래 많은 학생들이 학생상담센터를 찾아와 고민도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해가며 학생친화적인 공간으로 다가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숙하지만 그 속에 전문성을 갖춘 상담으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실 수 있는 카페라 생각하고 찾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한성대학교 학생상담센터
HANSUNG UNIVERSITY STUDENT COUNSELING CENTER

2016-2 학생상담센터 집단상담 프로그램 안내

집단상담은 10명 내외의 집단참여자가 전문상담사와 함께 동일한 관심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입니다. 특히 참여자들 간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와 타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며, 주제활동을 통한 자기성찰을 촉진합니다.

● 프로그램 일정

프로그램 명	일 정
불안인 놓기(불안 조절 집단)	10/26-11/23(매주 수) 10:00-1:00 (총 15시간)
복식, 스스로 개선하기 (식습관 개선 집단)	11/1-29(매주 화) 2:00-5:00 (총 15시간)
20대의 이야기 (자기 발견 집단상담)	11/3-24(매주 목) 2:00-5:00 (총 12시간)
관계 속의 숨겨진 힘 (대인관계 향상 집단)	11/7-28(매주 월) 2:00-4:00 (총 8시간)
대화의 맛(대화 훈련 집단)	11/7-28(매주 월) 5:00-8:00 (총 12시간)
성을 알면 내가 보인다 (나의 색유일리티 발견 집단)	10/10-11/7(매주 월) 1:00-4:00(총 12시간) (10/24은 중건교사 기간으로 제외합니다.)
맛춤형 집단상담	약 8명의 인원을 직접 모아 집단상담을 신청하면, 협의 하에 개설 가능합니다(주제 선택 가능).

● 신청방법
 방문 신청: 학생상담센터 미래관 지하 1층
 전화 신청: 760-4171/5813
 이메일 신청: counseling@hansung.ac.kr
 홈페이지 신청: www.hansung.ac.kr/web/hacc (공지사항 게시글 참고)

● 각 프로그램은 선착순 마감되며, 이수 시 수료증 제공
 ● 참여 시간에 따라 High-Success Point 인정 (최대 100pt)
 문의 02)760-4171/5813, counseling@hansung.ac.kr

| 학생상담센터 |
 2015년 4월 문을 연 학생상담센터는 학생상담지원 체계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일단 이 곳을 찾아오면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현재 상담센터장인 조난숙 교수를 비롯해 전문 상담사 3명, 객원 상담사 7명, 인턴 상담사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IT TREND DICTIONARY

01 _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

게임이 아닌 다른 분야에 게임의 메커니즘과 사고방식을 접목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 마케팅 등 특정 분야에 경쟁심이나 재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게임적 요소를 도입하여 더욱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게이미피케이션의 대표적인 활용 사례이다.

02 _ CDMA

위성통신 및 이동통신 등의 다중 접속 교환방식 중의 하나로 부호 분할 다중 접속을 뜻하는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는 하나의 중계기를 다수의 기지국이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통신회선간의 간섭을 피하기 위한 몇 가지 방식 중에 하나이며, 중계기의 대역이 제한되어 중계기당 전송 용량은 작지만 직접 호출로 통신이 가능하고, 누화방지와 간섭 대응력이 우수하다.

03 _ RFID

일정한 주파수 대역을 이용해 무선 방식으로 각종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일컫는 무선 식별시스템 RFID. 마그네틱이나 바코드 등의 특정 표시는 꼭 필요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훼손이나 파손 등으로 인해 인식률이 점차 떨어지는 단점이 있는 반면 무선 식별 시스템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준다. RFID는 현재 카드 시장에서 마그네틱을 대체하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회사 출퇴근 카드 등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04 _ 와이브로(WiBro)

이동하면서도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무선 휴대 인터넷을 말하는 와이브로(WiBro)는 2005년 12월 국제표준그룹인 미국 전자학회에서도 국제 표준으로 채택된 이후 2006년 6월 와이브로의 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이 서울 일부 지역에서 세계 최초로 와이브로 상용 서비스를 시작했다. 와이브로는 휴대형 무선 단말기를 이용해 시속 60km로 이동하는 상태에서도 고속 전송속도로 인터넷에 접속해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05 _ 린스타트업(lean startup)

아이디어를 빠르게 최소 요건 제품, 즉 시제품으로 제조한 뒤 시장의 반응을 본 후 즉각 제품을 개선하려는 경영전략을 말한다. 짧은 시간 동안 제품을 만들고 성과를 측정해 다음 제품 개선에 반영하는 것을 반복해 성공 확률을 높인다. 일본 도요타 자동차의 린 제조(lean manufacturing)방식을 소프트웨어에 적용했다.

06 _ N-스크린

TV나 스마트폰, PC, 태블릿 PC 등의 여러 기기에서 원하는 콘텐츠를 끊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하는 N-스크린. 태블릿 PC로 보던 프로그램을 TV나 모바일로 바로 이어서 볼 수 있으며, 애플의 에어플레이나 폭(Pooq), 티빙(Tving) 등이 N-스크린 서비스에 속한다. 한 가지 기기를 통해 보던 콘텐츠를 끊임 없이 다른 기기로 이어서 볼 수 있다는 편리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07 _ MCN(multi channel network)

다중채널네트워크를 뜻하는 MCN은 유튜브 등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1인 창작자들의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영상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무료로 메이크업 비법을 전수하거나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보 등을 제공하는 1인 창작자들이 특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기 있는 창작자들이 2인 이상 모여 네트워크를 형성해 함께 영상을 공동 제작하며 더 많은 인기와 팬층을 확보하고 있다.

08 _ 비콘(Beacon)

비콘(Beacon)은 블루투스 저에너지(BLE) 기술을 기반으로 근거리 내의 스마트 기기를 감지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근거리 데이터 통신 기술을 의미한다. NFC(근접무선통신)보다 가용 거리가 길고, GPS와 달리 실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O2O 서비스에 자주 사용되고 있다.

우리 것을 지키고 함께 소통하고자 노력하는 열정의 예인(藝人)

이승주 한국무용가 / 무용학과 92학번



한 민족의 성패는 전통문화와 세계 조류의 흐름을 어떻게 잘 조화시키고 유지하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화라는 이름 아래 전통문화가 사라져 간다면 우리 민족을 지탱하는 정신도 없어지는 것. 우리 전통의 것은 왠지 딱딱하고 어려워 다가가기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요즘, 관객과 소통하며 한국무용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녀가 있어 든든하고 반갑다. 한국 무용가이자 평인 이승주무용단의 예술 감독인 이승주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춤, 평생 배워야 하는 무한도전

누구에게나 그런 추억들이 하나 둘쯤은 있다. 어린 시절 학예회 발표 시간에 막연히 '춤 취보라'는 선생님의 권유로 예쁜 옷을 입고 좋아했던 기억. 이승주 감독은 7살 때부터 시작해 3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한국무용을 선택한 것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

"아무래도 예향의 고장이라는 전라도에서 나고 자라다 보니 어릴 때부터 동네 어른들이 춤 추고 노래 한 자락 하시는 모습이 익숙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시절이야 그냥 재롱잔치 수준이었을 테고, 중학교 때부터 서울, 광주로 레슨을 받으러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한국무용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이승주 감독에게 춤이란 하면 할수록 어려운, 그래서 평생 배워야 하는 무한도전과도 같다. 선생님들로부터 잘 한다는 칭찬을 받을 때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지만, 눈물이 절끔 나도록 혹독한 야단을 맞더라도 금세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의지가

자신 속에 내재돼 있었다고 한다. 무대에 서는 것이 좋았고, 무엇보다 춤추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았기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욕심이 많은 아이였어요. 좋은 선생님 밑에서 춤을 배우고자 싶은 열망이 커서 이매방 선생님, 김영숙 선생님과 같은 훌륭한 분들을 뵈 수 있었습니다. 한성대학교 시절 궁중무용을 접하면서 지금까지 승무 살풀이, 궁중정재 종묘제례악 일부를 공부하고 있는데 하면 할수록 어려운 춤이지만 무대에 서면 설수록 또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한국무용은 정적인 동시에 격정적인 에너지가 내포돼 있다. 그런 만큼 이를 표현하기 위해 무용가는 정중동의 밸런스를 잘 맞춰야 하는데, 이 과정이 참으로 어렵지만 벗어날 수 없는 묘한 매력이 있기에 이승주 감독은 힘들어도 힘들다는 생각을 못하게 된다고 한다. 그저 춤추는 것이 좋고 평생 공부를 해도 질리지 않는다니 천생 춤에 사로잡힌 '꾼' 이 아닐 수 없다.



뜨거운 열정과 욕심은 나의 무기

이승주 감독은 자신을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말한다. 한성대 무용학과 92학년 동문인 그녀는 교수님 앞자리를 지정적으로 줄곧 사수할 정도로 의욕이 많은, 그녀 표현대로 욕심이 많은 학우였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머리를 좋아리까지 길게 늘어뜨린 조용한 아이였어요. 대학에 와서 성격이 많이 바뀌었는데 아마 지방에서 서울로 유학 와서 기죽지 않으려고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거죠. 강의 시간이면 맨 앞자리에 앉아 교수님 말씀을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했고, 리더 기질이 있었는지 남들 앞에 나서기 좋아하는 유별난 학생이기는 했어요.”

욕심 많고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라 혼자 속으로 삭힐 일도 많았을 터, 그런 그녀에게 존경하는 선생님 한 분이 두루 아우르는 편안한 사람이 되라는 뜻에서 '평인'이라는 예명을 지어주었다고 한다. 그녀가 이끌고 있는 평인이승주무용단의 유래가 바로 여기에서 비롯하게 된 것이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일무 이수자이자,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이수자인 한국무용가 이승주가 예술감독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은 지난 2008년 평인이승주무용단을 창단하면서부터다. 평인이승주무용단은 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일무와 우봉 이매방 선생의 춤, 김영숙 선생의 궁중정재와 함께 신무용과 창작무용의 맥을 이어 전통과 창작무용을 아우르는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는 한국무용단이기도 하다.

“지난 2008년 있었던 스페인 사라고사 엑스포에서 <어머니의 바다>라는 작품을 공연하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자식과 남편을 위해 정화수를 떠놓고 기원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표현했는데 특히 우리만의 정적인 감성이 외국인들에게 더 어필하는 것을 보며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것을 느끼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많이 소통하자는 생각에 무용단을 창단하게 된 거죠.”

종묘제례악은 종묘에서 제사를 지낼 때 연주되는 음악과 노래, 춤이 함께 합쳐져 있는 종합 예술. 그 가운데 일무는 동작은 단순해 보이지만 혼자가 아닌 64명이 열을 지어서 추는 춤이다. 일무를 3년 이상 배우고 나서야 음악이 제대로 들리더라고 말하는 이승주 감독은 10년이 넘는 지금도 여전히 공부해야 할 분야가 무궁무진해 더 욕심이 생긴다고 한다.

현재 평인이승주무용단은 매해 150회 이상의 공연을 기본적으로 소화하며 이들을 필요로 하는 무대면 어디든 가리지 않고 찾아가고자 한다. 사라져가는 전통의 지킴이로, 전통과 현대를 이어주는 소통자로 전통춤과 궁중정재를 연구하여 쉽고 재미있게 이웃과 춤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이 큰 까닭이다.

이제는 전통예술이 대중에게 다가갈 때

2016년의 여름, 이승주 감독에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공연이 성사되었다. 애틀란타, 미네소타 등지에서 한국 입양인 및 동포들에게 우리 전통문화를 알리는 특별한 공연이 열렸

고, 이 공연에서 그녀는 부채춤, 진도북춤, 태평무, 승무 등 한국무용을 선보여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입양아 친구들이 우리 춤, 우리 문화를 알고자 하는 열의가 뜨거워 무척 놀랐고, 누구보다 한국을 사랑하고 우리보다 더 한국적인 분위기를 보면서 많은 반성을 했어요. 물론 K-pop도 좋지만 우리 전통문화를 알리는 일도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친구들에게 한국무용을 가르쳐줄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가지는 선입견이 '무용은 어렵다'와 '무용은 일부 계층만 누리는 그들만의 문화'라는 인식이다. 이 두 가지의 오류에 대해 이승주 단장은 단호하게 'NO'를 말한다. 그녀가 생각하는 무용 공연은 누구나 즐길 수 있고, 또 누릴 가치가 있는 아름다운 무대이기에 모두에게 쉽게 다가설 수 있는 무대를 꿈꾸고 또 바라고 있다.

“2011년부터 소통을 주제로 공연을 해오고 있는데, 관객과 소통하며 서로 간의 거리를 좁혀가자는 마음에서 작은 소극장 공연을 하기도 했어요. 저와 우리 단원들이 보여드릴 수 있는 공연은 다 찾아가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그들만의 잔치'로 예술이 국한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예요, 한국무용은 어렵고 잘 모르겠다는 분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열심히 찾아서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주 보여드리고 싶어요.”

예술가는 젊어서는 예술적 고뇌를 해야 하고, 어느 정도 무르익은 시기에 이르면 공인으로서 책무를 해야 한다. 이는 이승주 단장의 머릿속에 한시도 떠나지 않은 생각이었고, 또 앞으

로 그녀에게 주어진 숙제이기도 할 터. 무대에 서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자신의 춤을 알고 볼러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에 감사하기 때문에 자신은 무대를 가릴 수 없다고 하니 앞으로 관객과의 소통을 위한 이승주 감독의 무대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자신에게 춤이란 죽기 전까지 하고 싶은 일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일부와도 같다고 말하는 이승주 감독의 소망은 세종문화회관과 같은 큰 공연장에서 궁중정재부터 창작무용에 이르기까지 그녀가 선보이고 싶은 모든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것이다. 누구보다 열정어린 삶을 살아온 '욕심 많은'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진심어린 조언을 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할 수 있는 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또 열심히 놀아도 보고, 남들이 해보는 것은 여한 없이 다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놀면서 즐기면서 춤을 쳤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열정을 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학교 들어올 때 치열하게 준비하고 마음먹었던 초심을 잊지 않도록 자신만의 성을 견고하게 쌓아가길 바랍니다.”

| 한국무용가 이승주 |

- 제18회 경기국악제 무용부분 대상 수상
- 포천시립예술단 무용부장
- 2008 스페인 사라고사 엑스포 공연단무장
- 2009~현재 평인이승주무용단 예술 감독
-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일무 이수자
-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이수자
- 정재연구회, 우봉 이매방 춤 보존회 회원, 청어람 회원

나의 작은 재능이 주변을 아름답게 꽃피우다

우리가 나누는 것은 작은 마음과 노력이지만, 이렇게 모인 정성들은 커다란 기쁨과 힘이 된다. 자신의 재능과 마음을 나누며 주변을 아름답게 꽃피우는 학우들을 만나보자.



또래이기에 가능한 공감대, 마음이 튼튼해졌어요

한성또래상담자 활동 | 글. 이현경 / 무역학과 14학번



벌써 또래상담 활동을 한 지 세 학기째 입니다. 또래상담자는 한 학기 단위로 활동 학생을 모집하는데 저는 벌써 3번의 지원과 3번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긴 기간 활동하면서 저는 이제 상담자의 면모가 어느 정도 제 안에 자리잡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무슨 이야기나 고민을 토로할 때 집중해서 듣고, 관심을 가지는 버릇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또래이기에 가능한 공감대가 있었고, 제 작은 관심이 이들의 학교생활에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역시 학우를 도우며 사실 생각지 못한 제안의 큰 성장들이 일어났습니다. 책임감, 학업,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부분 등에서 저의 성장을 느낄 수 있었던 점이 이 활동의 가장 큰 매력으로 기억에 남았습니다. 또래상담자가 되고 학교에 계신 전문 상담 선생님들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심리와 관련된 공부나 교육을 받고 싶지만 그럴 기회가 잘 없었기에 그 시간들이 정말 좋았습니다. 교육을 받으며 제가 새롭게 알게 된 것들, 그리고 상담자로서

좋지 못한 행동, 말투 등을 배우며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처음엔 부담감이 많았습니다. 진심으로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새로 배운 것들을 빨리 숙지하려 애썼고, 이를 직접 상담에 적용하려고 하니 처음 지원할 당시보다 훨씬 막중한 책임감과 생각할 거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상담을 할수록 학우들은 고민이 있을 때 옆에서 함께 고민을 나누고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사실만으로 많은 고마움을 표했고, 상담자는 해결사가 아니기에 해답을 주지 않더라도 누군가와 감정을 함께 나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변을 보면 봉사를 하는 유형도, 방법도 다들 제 각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봉사는 거창한 느낌보다는 본인이 도울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과 특성, 재능을 조금 나누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활동을 하며 다시 한 번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꾸준히 세 학기 동안 봉사를 실천해 왔기에 이번 또래상담자 3기 활동이 끝났을 때에도 남은 학교생활에 있어 주변 학우들에게 고민거리가 생겼을 때 옆에서 관심을 보이고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간직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제 자신의 마음도 잘 헤아릴 수 있는 몸과 마음이 건강한 대학생으로 지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긍정적인 면모와 활기, 공감능력을 잃지 않고 저를 비롯한 제 주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웃음으로 마음이 열리는 시간, 제 마음도 환해집니다

웃음치료 봉사 활동 | 글. 최연우 / 응용인문학부 16학번



학교 홍보대사로서 한 달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여름에 웃음치료 봉사활동에 참가한 후 어르신들과 함께한 그 시간들이 재미있어서 이번에도 신청하여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웃음치료라고 해서 봉사활동 전체의 시간들이 모두 즐겁고 재미있지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웃음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할머니들과 할아버님들이 서로서로 친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친한 분들끼리만 어울리고 자리도 친한 사람들이 많았으려고 하셔서 자리 안내해주는 데 힘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가끔은 식사하러 가시는데 혼자 다른 길로 가서서 할머니를 찾아서 안내하러 가던 기억도 납니다.

하지만 여기에 웃음치료 받으러 오시는 할머니들과 할아버님들이 너무 밝고 쾌활하셔서 저도 같이 치료받는 것 같았습니다. 또 저희 학생들 말고 주민 분들께서도 봉사하러 오시는데 그 분들마저도 너무 밝고 재미있으셔서 얘기를 듣고 나누다

보면 오히려 제가 마음의 힐링을 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웃음치료가 보통 아침 10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아침부터 조금은 불편한 몸들을 이끌고 오셔서, 밝고 건강하게 사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나도 나이가 들어 저렇게 행복하게 열심히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르신들과 이렇게 가깝게 지내기 전에는 물리적인 나이로 사람들을 판단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봉사활동을 하며 저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마음이 젊으면 그 사람은 청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1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청년의 마음으로 밝고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대학생이 된 후 여러 활동들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만의 상상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마구마구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중 봉사활동도 한 경험이겠죠? 그러한 활동들을 통해 제 미래의 진로계획이 하나씩 설계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행복하게 청년답게 살고 싶어요.

우리의 작은 마음이 위로와 힘이 되는 따뜻한 경험

성북푸드마켓 봉사 활동 | 글. 강승현 / IT응용시스템공학과 16학번



하며 성북푸드마켓 활동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성북푸드마켓 활동을 하며 어르신들이 말씀하실 때 발음이 다소 부정확해서 이해하기 조금 어려웠지만 다시 여쭙어도 웃는 얼굴로 말씀해주실 때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린 친구들이 어르신들을 위해 이렇게 나와서 봉사도 하고 짐도 들어주고 정말 기특하다고 하실 때 정말 진심으로 행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북푸드마켓에서 봉사를 하면서 어르신들을 어렵고 불편해하는 것은 어찌면 우리의 잘못된 선입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작은 도움만 드려도 어르신들은 매우 고마워하시고 힘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하게 느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작은 노력과 마음들이 모여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된다면 그만큼 보람된 시간도 없지 않을까요? 그 감동은 결코 물질로 환원될 수 없는, 우리가 경험으로만 체득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시간임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북푸드마켓에 자주 나가서 어르신들의 말동무도 되어드리고 무거운 짐도 들어드리며, 작은 봉사로 많은 어르신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저는 한성대학교 홍보대사 화랑입니다. 하랑은 8월부터 매주 한 명씩 돌아가면서 성북푸드마켓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북푸드마켓을 찾아오시는 어르신들의 말동무도 되어드리고 때로는 무거운 짐도 들어드립니다. 또 성북푸드마켓으로 전달되는 음식이나 생필품들이 정말 많고 무거운데 그 물건들을 창고로 운반하기도 하고 어르신들의 성북푸드마켓의 만족도도 조사합니다. 또 성북푸드마켓에서 실시하는 웃음치료 봉사에도 참가해 어르신들이 댁에만 계시지 않고 밝은 모습으로 건강하게 지내시도록 도와드립니다. 제가 웃음치료 봉사에 갔을 때는 신나는 음악을 틀어놓고 같이 춤을 추며 함께 신나게 놀기도 했습니다. 봉사가 끝나고 맛있는 삼계탕도 같이 먹으며 어르신들과 더욱 가깝게 마음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는 어르신들께 봉사하는 것이 어렵고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스무 살이 되고 나서 어머니 아버지가 부쩍 늙으신 것을 보니 마음이 아프더군요. 부모님 생각을



내 인생의 지도를 개척하다

자신만의 패기와 아이디어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젊은이들이 있다. 그들이 만들어가는 상상력 가득한 '도전의 지도'를 만나보자.



꿈을 향해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

오토 디자인 어워드 수상 | 글. 서민재 / 제품디자인학과 12학번



저는 자동차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종이와 볼펜만 있으면 항상 내가 타고 싶은 자동차, 좋아하는 자동차를 그렸고, 지금은 이 자동차 스케치가 제 가장 큰 취미가 되었습니다. 운송기기와 관련된 유명한 잡지, TV프로그램은 항상 모두 찾아보았고, 모터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근에는 CES에 참여하는 자동차 업체들을 보며 꿈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4년 CES에 출품한 현대자동차 그룹의 '콕 핏' 디자인을 알아보게 되면서, 이 디자인을 만든 회사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의 콕 핏(Cock-Fit)을 디자인한 'ID-nCom'이라는 회사에 교수님의 소개로 포트폴리오를 들고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면접을 보았습니다. 대학교 2학년 밖에 되지 않은 저였지만, 방학동안 디자이너 인턴으로 일할 수 있게 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이 일을 계기로 제 꿈을 향한 도전에 더 큰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포털 사이트 메인에 광고 중이었던 공모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인턴 기회, 그리고 부산 모터쇼에서 작품 전시의 기회까지,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6 Auto Design Award에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도전은 언제나 즐겁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창작 역시 즐겁지만 그만큼의 고통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성대학교 제

품 디자인 과에서는 저처럼 운송기기 디자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었기에 이 새로운 도전에 대해 조언을 구할 곳도 부족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은 혼자 방에 틀어 박혀서 수십 장의 스케치를 했습니다.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못하고 있는 건지 조언을 구할만한 곳이 없어 많은 갈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스케치 수업을 담당하셨던 김용환 교수님의 도움으로 많은 조언을 구할 수 있었고, 감사하게도 '르노 삼성 브랜드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크고 작은 공모전에 도전해왔지만 제 작품이 부산 모터쇼에 전시되고, 매스컴에 소개가 되는 영광과 함께 시상식에선 평소에 좋아하던 르노 자동차의 성주완 수석 디자이너께 직접 상까지 받게 되어서 그 기쁨이 배가 되었습니다. 어느 한 분야의 최고들이 되기 위해선 '1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콤 글래드웰(Malcolm Gladwell)의 <아웃라이어>란 책에 나와 있습니다. 10년 후에 저는 1만 시간을 투자한 최고가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저의 전공인 제품 디자인을 토대로, 10년 후까지 노력과 실력을 쌓아 올려, 최고의 산업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흐트러짐 없는 노력으로 탐을 쌓아 올려서 언젠가는 한성대학교에서 후배 그리고 선배님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사람이 되기를 꿈 꿉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 만들 수많은 제품들 속에 제 열정과 노력이 녹아들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도전의 첫걸음을 이제 막 시작했고, 앞으로 남은 한성대학교 생활에서 '1만 시간'의 타이머를 작동시키려 합니다.



무대에서 춤추는 행복한 꿈을 관객과 함께 느끼고 싶어요

2016 한·중 국제 무용경연대회 수상 | 글. 김현지 / 무용학과 13학번



이번 한·중 국제 무용경연대회에서 수상을 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국내에서 열리는 여러 종류의 콩쿠르에 참가를 해왔었는데, 이 한·중 국제 무용경연대회에는 한 번도 참가한 적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무대, 새로운 경연대회에 참가한다는 것은 두려움과 동시에 도전의 의지를 불태우게 만들기도 합니다. 한·중 국제 무용경연대회에서 다른 나라의 색다른 참가자들과 무대에 서보면 어떨까 하는 호기심과 설렘도 이 대회에 참가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낼 호기심과 상상력이 저를 항상 새로운 무대,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딱히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늘 하는 클래스(작품 연습을 하기 전 몸을 푸는 과정이나 수업을 뜻함)와 매

일매일 일정한 횟수로 하는 작품연습을 통해 긴장감은 크게 없었습니다. 의외로 무대에서 떠는 체질이 아니어서 무대에서 실수를 할까하는 걱정보다는 제가 무대에서 잠생각을 하게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제가 무대에서 실수를 할 때엔 늘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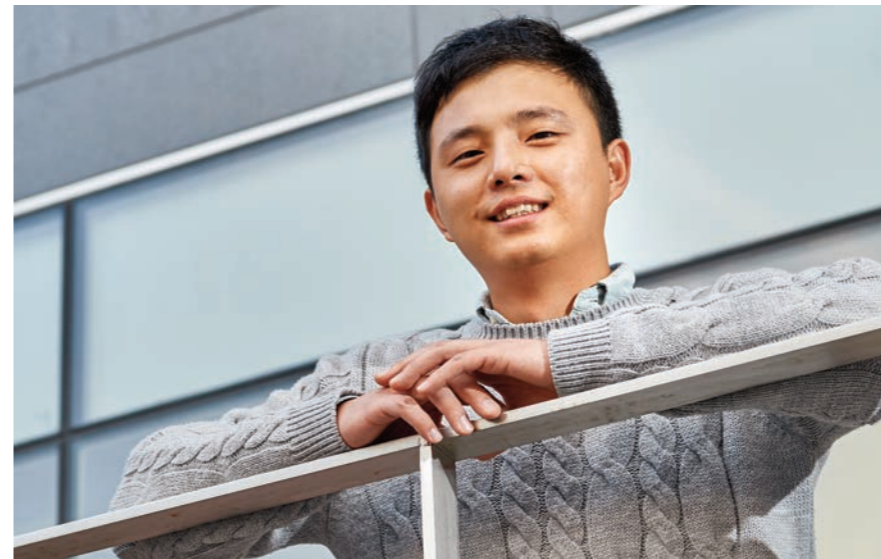
연습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수확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대회에서 한 작품은 제가 연습한 작품 중 가장 연습횟수가 많았던 것이라 제일 편하게 춤을 추었고 실력이 여기서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수님과 선생님들과 함께 연습을 하면서 성장하는 제가 신기했습니다. 그동안 어려웠던 동작이 쉽게 다가오기도 하고, 감정연기도 더 풍부해졌습니다. 아마도 이런 뜻밖의 즐거움이 무대에 이어져서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었나 봅니다.

저는 앞으로도 다치지 않는 한, 무대에서 계속 춤을 추고 싶습니다. 제가 무슨 역할을 맡던 제가 춤추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캐릭터가 춤추는 것처럼 보이도록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별한 꿈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꿈이 되는 무용수가 되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때 동생들이 선생님께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라는 말을 전해들은 적이 있는데, 그 때 기분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고 황홀했습니다. 또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던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른 이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일상에서 반짝이는 상상력이 창업의 원동력이 되다

‘고시락’ 애플리케이션으로 교육부장관상과 창업진흥원장상 수상 | 글. 김환중 / IT응용시스템 09학번



고시원 통합 애플리케이션 ‘고시락’은 고시원과 도시락의 합성어입니다. 작은 공간에 아기자기하게 필요한 것이 다 들어 있는 고시원과 도시락의 모습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만든 네이밍입니다. 대학 졸업 작품을 준비하면서 뜻을 함께할 친구들을 모아 머리를 맞대는 과정에서 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고시락’은 다운로드 3만 건, 고시원 데이터베이스 900개를 받았으며, 교육부장관상, 창업진흥원장상 등을 수상하였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 창업수업을 들으며, 동아리를 개설하고 창업을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저는 SK동아리 이전부터 창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학생 창업 동아리를 모집한다는 얘기를 듣고 기존에 준비하고 있었던 아이템을 토대로 SK동아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SK창업 동아리에 선정이 된 후 현재는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시락’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까지 창업팀이 다 학교를 졸업한 팀원들이기에, SK동아리 캠프 등 전반적인 행사를 대학생인 저 혼자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른 팀들은 여러 명이 나누어서 진행하는 일을 저 혼자 처리하기에는 조금

힘들었지만, 캠프나 동아리행사를 다니며 많은 창업동아리를 만나 시각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그럼에도 우수 팀에 선정되어 감사하게 생각하며 더욱 분발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그것을 현실에서 이용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드는 과정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현실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것에 상상력의 힘을 보태는 것이 이 과정의 재미이자 저만의 비밀병기이기도 합니다. 어머니께서 고시원을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고시원 업주들의 니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음 ‘고시락’을 개발하고 브랜드 인지도가 없는 상황 중에 고시원을 섭외하는 영업 과정에서 난관을 느꼈지만 고시원 업주들이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것에 대해 모르다가 차후에는 ‘고시락’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해주실 때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나하나 DM발송을 하며 고시원 업체를 확보하는 과정을 거치다가 최후의 선택으로 직접 찾아가 몸으로 부딪히고 결과물을 얻어낸 그 모든 시간들이 저에게 큰 경험이 되었습니다.

‘고시락’은 고객들에게 발맞추기 위하여 습도와 방음, 온도를 함께 체크할 수 있는 1인 거주자들을 위한 IoT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시원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원룸을 포함해서 더 많은 1인 거주자 분들을 위해서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향후 프랜차이즈 사업 또한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상력을 배양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만들다

2017년 학사구조개편 | 조규태 / 입학홍보처장

한성대학교의 2017년도 학사구조개편은 기존 대학이 가진 고정적 틀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상상력을 키우기 위한 새로운 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학사구조개편을 위해 모든 구성원이 참여해 교육과정 개편을 논의함으로써 교육의 질이 좀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규태 입학홍보처장에게 2017년 학사구조개편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1 2017학년도 입시와 관련해 우리대학은 무엇이 달라지나?

- ▶ 가장 큰 변화는 사회적 수요 대응과 학생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수시에서는 단과대학 또는 학부단위로 선발하고, 정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수능 100%로 인문계와 자연계 구분 없이 선발하는 것이다. 또한 자율전공 개념의 '상상력 인재학부'로 광역화하여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것이다.
- ▶ '상상력 인재학부'로의 광역화는 학생이 선택한 단과대학 또는 학부에 대하여 1학년 과정에서 다양한 학문 분야를 체험하고, 2학년 진학 시 자신의 적성에 맞는 2개 이상의 복수 트랙을 선택하도록 하여 지식 및 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 ▶ 정시모집의 경우 수능의 인문계와 자연계 구분 없이 수능 100%로 선발하고, 모집단위 및 학부의 광역화로 1학년 과정에서 여러 단과대학 및 학부에 대한 체험을 하고, 2학년 진학 시 인문·예술, 사회과학, 디자인, 공과 대학 중 자신에게 적합한 대학 및 트랙을 선택하도록 했다. 따라서 정시에 우리대학에 지원코자 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부를 선택하여 지원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있다.
- ▶ 이와 같은 입시 변화를 통해 학생들에게는 전공 선택권을 주고, 대학은 단과대학 간 그리고 학부 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사회적 요구와 산업 수요에 맞춘 학사구조 개편을 자연스럽게 진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트랙 신설 등으로 다전공 분야를 강화한 이유는?

- ▶ 전공 및 트랙을 확대해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전공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학생 스스로 적성에 맞는 진로 탐색을 갖추기 위함이다.
- ▶ 4개 단과대학 총 40여 개 트랙으로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8개 트랙,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11개 트랙, 예술대학 ICT디자인학부에 7개 트랙, IT공과대학에 14개 트랙을 두게 되었다.

3 한성대학교가 원하는 인재상이 있다면?

- ▶ 본교가 추구하는 인재상은 창의적인 상상력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고교과정에서의 단순한 교과 성적보다는 우리 대학의 상상플랫폼을 믿고 적극성과 소통능력 및 열린 사고를 지니고 있으며, 앞으로의 성장이 더 기대되는 학생을 찾고자 한다.

4 입학 후 졸업까지 학교 시스템의 강점과 향후 계획은?

- ▶ 2017학년도에 변화된 학사구조개편에 따라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다양한 전공(트랙)을 체험하고, CENTER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한성대학교만의 상상플랫폼 안에서 창의성, 적극성, 소통능력, 신뢰성, 효율성, 준비성을 갖춘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인을 육성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향후에는 자연스럽게 본인이 선택한 분야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리드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 새롭게 신설되는 트랙(전공)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학부 트랙(전공) 현황 ”



인문예술계열

크리에이티브 인문학부

- 영미문화트랙
- 글로벌언어정보트랙
- 한국어교육트랙
- 문학문화컨텐츠트랙
- 글로벌역사트랙
- 역사문화컨텐츠트랙
- 정보문화트랙
- 라키비움비즈니스트랙

예술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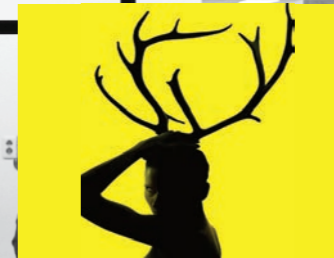
- 동양화전공
- 서양화전공
- 한국무용전공
- 현대무용전공
- 발레전공



사회과학계열

미래융합 사회과학부

- 국제통상트랙
- 글로벌비즈니스트랙
- 경제·산업분석트랙
- 금융·데이터트랙
- 공직진출트랙
- 정책관리트랙
- 부동산자산관리트랙
- 스마트그린산업트랙
- 벤처경영트랙
- 기업경영트랙
- 회계·재무경영트랙



디자인계열

글로벌패션산업학부

- 패션마케팅트랙
- 패션디자인트랙

뷰티메니지먼트학과

- 헤어디자인트랙
- 화장품디자인트랙

ICT디자인학부

- 뉴미디어광고·커뮤니케이션트랙
- 영상·애니메이션트랙
- 제품·서비스디자인트랙
- 페이지&브랜드디자인트랙
- 인테리어·코디디자인트랙
- VMD 전시디자인트랙
- 환경·전시무대디자인트랙
- 게임일러스트레이션트랙(야간)



공과계열

컴퓨터공학부

- 모바일소프트웨어트랙
- 빅데이터트랙
- 디지털콘텐츠 및 가상현실트랙
- 웹서비스트랙

기계전자공학부

- 기계설계트랙
- 기계자동화트랙
- 전자트랙
- 정보시스템트랙

IT융합학부

- 지능형로봇트랙
- IoT로봇트랙
- 사이버보안트랙
- ICT융합엔터테인먼트트랙

스마트경영공학부

- 스마트시스템경영트랙
- 스마트생산물류트랙
- 스마트융합컨설팅트랙

새로운 학습 플랫폼으로 스마트하게 공부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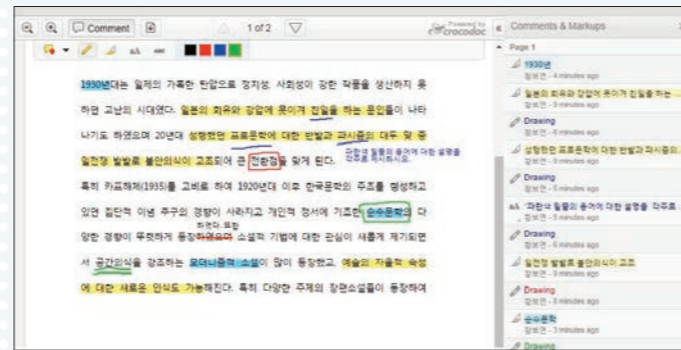
차세대 스마트 학습관리시스템 블랙보드 도입

정보통신 발달과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플랫폼이 필요해졌다. 그리고 교수자는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교수법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서로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자 역할이 중요해졌다. 이와 같은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우리 학교는 차세대 스마트 학습관리시스템(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인 '블랙보드(Blackboard)'를 도입하기로 결정, 2016년 2학기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전 교육과정에 적용할 계획이다. '블랙보드'는 △화상강의 △토론 △표절검사 △동료평가 △온라인 시험 및 자동채점 △성적관리센터 △일정 알림 등 교수·학습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블랙보드의 다양한 기능들을 살펴보자.

1 교수와 학생 간 다양한 협업도구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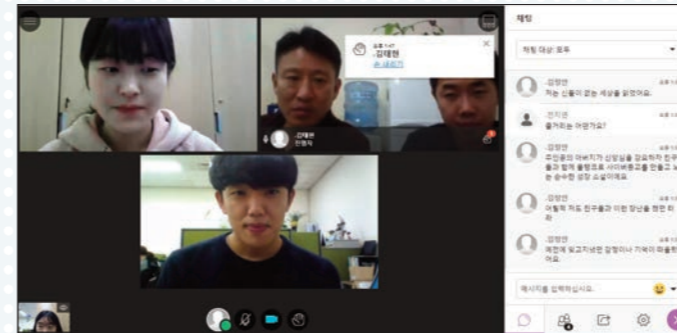
블랙보드는 가상의 강의실(e-class)내에서 교수-학생, 학생-학생 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협업도구를 지원하고 있다. 토론방, 블로그, 저널, 그룹 활동, 위키 등 다양한 도구를 통해 구성원 간 상호작용을 도와 효과적인 협업을 할 수 있다. 특별관리센터에서는 성적이 부진하거나 학습활동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 학습자의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기 쉽도록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한다.



블랙보드에서는 학생이 제출한 과제물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필요없이 브라우저에서 바로 띄어 내용을 확인하고 채점할 수 있다. 교수자는 화면에 띄어진 과제물에 직접 하이라이트를 표시하거나 피드백이 필요한 지점에 코멘트를 입력하고 텍스트와 취소선을 활용하여 첨삭을 해줄 수 있다. 평가를 마치면 과제별 할당 점수가 자동 합산되어 효율적인 성적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블랙보드에서는 코스(강좌)내에 표절검사 기능이 통합되어 있어 과제물의 표절을 편리하게 검사할 수 있다.



2 실시간 원격 화상 강의 : 콜라보레이트(Collaborate)



블랙보드는 콜라보레이트(Collaborate)라는 실시간 원격 강의 시스템을 지원한다. 온라인상에서 학생들과의 인터랙티브한 현대면 강의실 학습 환경을 재현했고, 원격 강의에 참여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 별도의 강의실 구축 없이 자신의 PC에서 접속이 가능하다. 콜라보레이트를 통해 실시간 비디오 회의 도구를 활용하여 파일을 추가하고 애플리케이션을 공유한다. 가상 화이트보드에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여 화상 수업과 협업이 가능하게 하고 원격 회의나 시험, 인터뷰 활용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콜라보레이트는 블랙보드와 연계되어 각 강좌에서 교수자들이 실시간 원격 강의 세션을 오픈할 수 있다.

3 소셜 러닝 플랫폼을 활용한 협업 중심의 학습 환경 구축

블랙보드 소셜 러닝 플랫폼은 혁신적인 협업 중심의 학습 환경으로 구축되었다. 페이스북과 같은 스트리밍 인터페이스로 프로필 관리, 친구 맺기, 커뮤니티 스페이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전세계 블랙보드 사용자를 만날 수 있다. 특히 소셜 러닝 플랫폼은 푸시 방식으로 고도의 정보 제공 기술을 제공하며 사용자는 자신과 관련된 콘텐츠만을 원스탑 서비스로 제공받는다. 수업과정(코스)의 공지, 토론글, 시험, 강의 자료뿐만 아니라 소셜 및 학습 커뮤니티의 활동을 모두 한 곳에서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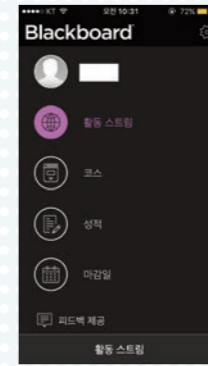
블랙보드 로그인 방법

1. URL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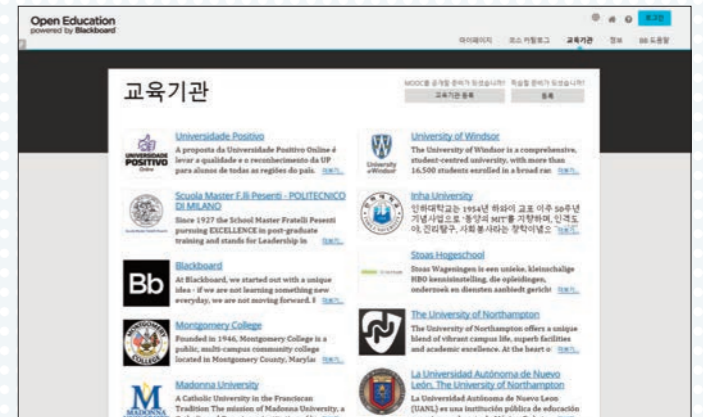
가장 먼저 한성대학교 LMS 시스템의 URL을 입력하고 로그인한다. [https://learn.hansung.ac.kr]을 입력 후, '로그인(Login) e-class' 버튼을 선택하면 한성대학교 종합 정보시스템 페이지로 이동. 해당 페이지에서 기존 교번과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하면 블랙보드 페이지로 자동 이동.

4 모바일 학습을 위한 Bb Student app 기능



Bb Student는 학습자를 위해 구축된 블랙보드 최초의 모바일 앱이다. Bb Student는 코스(강좌), 콘텐츠, 교수자 및 기타 학습자와 상호작용하는 직접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한층 세련된 디자인으로 쉽게 사용이 가능한 이 앱에서 과제, 시험 및 퀴즈에 응시하고 제출 내용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코스 성적과 개별 시험 및 과제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Google Drive, Dropbox, OneDrive에서 과제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 가능하다.

5 MOOC - Open Education



블랙보드에서 제공하는 Open Education은 온라인 공개 교육 플랫폼으로, 모든 블랙보드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Open Education에서는 전 세계 우수한 강좌들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클라우드를 제공하고 다국어 및 한글지원이 되며, 수천 수만 명의 동시 수강생 지원이 가능하다.

2. 한성대학교 포털사이트



한성대학교 포털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홈페이지 하단에 위치한 '한성 e-class' 버튼을 선택하면 블랙보드 페이지로 자동 이동.

젊은 세대들에게 나라사랑을 알리는 영원한 멘토

고시성 / 국방과학대학원 안보전략학과 교수



아는 것만큼 보이고 또 보이는 만큼 행하게 된다. 폭넓은 학식과 건문이 쌓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큰 중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젊은 세대들에게 나라사랑의 길을 알리는 멘토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스승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그리고 치열하게 준비하며 자기개발에 힘쓴 고시성 교수. 그는 준비하고 노력하는 가치 있는 삶을 통해 젊은이들이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롤 모델이 되어주고 있다.

모두가 인정하는 나라사랑 전도사

참 치열하게 그리고 열심히 살았다. 육사 38기로 34년 간 군 생활을 수행했고, 한성대 국제대학원 국제지역정보학 석사, 동 대학원 정책학 박사를 거쳐 현재 국방과학대학원에서 8년째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니 이만하면 앞만 보고 씬 없이 달려 온 인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터다. 여기에 더해 100회 이상 강연을 다니는 명강사로 활동하는데다, 올 6월에는 독립기념관 감사라는 중책을 맡게 돼 고시성 교수는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 중이다.

“한성대에서 석사와 박사를 하고 국방과학대학원 초대 동문 회장직을 맡고 있는 만큼 한성대와는 상당한 인연이 있다고 할 수 있지요. 저는 육사 출신이어서 제대로 된 대학생활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한성대 대학원에 들어와서 후배들과 함께 공부도 하고 추억도 쌓으며 진정한 대학 생활을 누릴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공부하는 기간만 따져보니 23년. 참 오랜 기간 학생으로 있었다며 밝게 웃는 그는 좋아하는 공부도 원 없이 하고,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또 나라사랑교육에 힘쓰는 강사로 살아가는 지금이 무척 보람되고 만족스럽다.

“34년 간 국방을 지켜온 군인 출신이다 보니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몸에 배어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방대학원에 있는 110명의 군인들이 다 후배들이니 만큼 그들에게 나라사랑을 가르치는 것은 선배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사랑이라는 말은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는 지금의 젊은 세대들에게는 조금은 구태의연하게 다가갈 수 있다. 이에 대해 고시성 교수는 나라사랑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우리가 밭을 딛고 있는 이 땅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나라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 이웃이 다 같이 어울려 안전하게 살아가는 일상이 다 나라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나라사랑 그리 어렵지 않지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청춘들이길

지난 세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덕분일까, 고시성 교수는 생각한 바를 실행에 옮김에 있어서도 주저함이 없다. 이는 그만큼 자기 확신이 강하게 서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독립기념관 감사는 기관장을 감사하는 독립기관으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자리입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지어진 공간인 만큼 독립기념관을 나라사랑을 일깨우는 장소로 격상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노력한 끝에 지금은 우리 장병들이 휴가 나올 때 반드시 들려 나라사랑을 되새겨 보는 장소로 독립기념관이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고시성 교수는 만약 지금껏 살아오면서 조금의 일탈이라도 있었다면 아마 독립기념관 감사직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라며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참 후회 없는 생을 살아왔다고 자부한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열정이 없다는 말들을 하는데 절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살다 보면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지만 그때 주저앉아 버리면 그야말로 끝입니다. 윈스턴 처칠이 전쟁 후 시름에 잠긴 영국 국민들에게 ‘Never Give Up!’ 이라는 말로 용기를 북돋워줬다고 하죠. 저도 그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상상력이 강한 우리 한성대 후배들이니 잘 해내리라 믿습니다!”

늘 푸르른 소나무의 기상을 닮은 청춘들이길

김근래 /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처럼 좋은 기운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있다.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속으로 딱 찬 에너지가 느껴지는 김근래 선배님. 한성대학원에서 보낸 2년이 최고로 행복한 시절이었다 말하는 그는 올곧은 소나무의 기상을 후배들에게 전하고픈 마음에 '한성사랑 소나무길'을 선물해 준 고마운 키다리 아저씨이기도 하다.

시골 소년, 꿈을 이루다

하늘의 뜻을 안다는 나이가 되었지만 배움에 대한 열망은 끝이 없다. 김근래 선배님은 신이 훌쩍 넘어 행정대학원에 입학한 늦깎이 학생이지만, 하고 싶은 공부를 위해서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1학년 1, 2학기 과대표, 행정대학원 원우회장을 두루 거친 이력에서 '나서기'를 좋아하는 분인가 싶었더니 그냥 자신보다는 남들이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좋아서 본의 아니게 '감투'를 쓰게 되었다 말하고 웃는다. "우리 대학원 선배들이 편안하게 지내고, 또 교수님과의 우리 원생들 사이가 잘 소통하도록 교량 역할을 잘 해내고 싶어요. 제 고향이 경기도 여주의 작은 시골마을인데 열 살 무렵에 대학생 형님과 누님들이 봉사활동을 오신 적이 있어요. 시골 아이들과 축구도 스스럼없이 잘 하던 모습을 보고 어린 마음에 참 멋있었다, 나도 저 학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품었는데 그게 바로 한성대였습니다."

10대 시절의 막연한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꽤 오랜 세월이 걸렸지만 결국 시골 소년이었던 김근래 선배님이 바라던 소원을 마침내 이루었으니 이만하면 성공한 삶이라 해도 좋지 않을까.

"18살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다 보니 늘 배움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더 늦기 전에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대학에 이어 대학원까지 진학했으니 꿈을 이룬 셈이죠. 우리 대학원에서 보낸 2년이 제 인생에서 최고로 행복한 시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학원을 다니는 동안 동기들, 교수님들과 화목하게 지내며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어서 참 좋았다는 김근래 선배님은 뭔가 일을 도모하면 내 일처럼 협조를 아끼지 않는 선배들의 응집된 모습에서 한성인의 에너지를 느꼈다고 말한다. 그래서일까, 성북동에서 30년 넘게 살면서 가까운 곳에 한성대가 자리하고 있어 늘 든든하고 고마운 마음이 든단다.

'나'가 아닌 '우리'를 위한 마음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조정 사업에 뛰어들어 덕분에 비교적 일찍 경제적인 기반을 이룰 수 있었던 그는 평소 관심이 많았던 사회복지 분야로 눈을 돌려 현재 불우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설립된 동소문 장학회의 회장을 맡고 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엄한 교육을 받아서인지 남한테 손가락질 받는 일은 추호도 하기 싫고 저보다는 다른 사람이 좀 더 편했으면 하는 마음이 큼니다. 여력이 되면 작은 복지관을 지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봉사하며 사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근래 선배님은 조정 일을 하면서 정성 들여 가꾼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관심과 애정으로 돌봐야 하는 귀한 존재들을 강조한다.

한성인이라면 학교 중문으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최근 새롭게 정비된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관심 있게 본 학우들이라면 양쪽으로 15개의 소나무가 반듯하게 심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길에 김근래 선배님을 비롯해 행정대학원 원우회 여섯 선배님의 이름으로 기증된 '한성사랑 소나무길'이다.

"학교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스럽게 '한성사랑 소나무길'이라는 현판을 걸어주셔서 함께 참여한 원우회원들 모두 가슴속 깊이 흐뭇하고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소나무는 우리 고유의 수종으로 늘 푸르고 건강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우리 한성인들도 뿌리 깊은 소나무처럼 흔들림 없이 건강하고 푸르른 대학생활을 보내길 기원한다는 덕담을 끝으로 김근래 선배님과 만남을 마무리했다.

Hansung News

한·일 상대국어 선택 고교생 초청 연수 프로그램 진행

본교는 지난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한·일 상대국어 선택 고교생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한·일 상대국어 고교생 초청 연수는 국립국제교육원이 추진하는 '2016 한·일 교류사업' 중 하나로 한국과 일본의 협력 관계 기반을 구축하고 양국 간 우호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본교는 초청 연수단으로 선정돼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에는 한국어를 제 2외국어로 선택한 일본인 고교생 26명이 참여해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한국 학생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본 학생들은 한글박물관과 서울N타워, 경복궁과 고궁민속박물관, 비무장지대(DMZ), 대학로 등을 방문하고 한성대 및 한성여고 학생들과 서울 시내에서 미션을 수행하는 활동도 했다. 그룹별 미션 프로그램인 의견 나누기 시간에는 양국의 미래 지향적 우호관계에 대해 토론을 했다.

서 외국인들을 위한 뷰티헬스 교육의 필요성을 실감해 한성대와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본교는 메디넥스로부터 해외 위탁교육생을 받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커리큘럼으로 교육하게 된다. 이상한 총장은 "한성대는 뷰티헬스와 관련해 학부와 대학원, 재직자가 추가 교육을 받는 평생교육원까지 갖춘 유일한 학교"라며 "해외 전문가를 육성할 기회를 준 메디넥스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메디넥스와 해외우수인재 위탁교육 MOU 체결

본교는 지난 10월 25일 기능의학검사 기업인 (주)메디넥스와 미용분야 해외우수인재 양성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메디넥스는 수년간 중국과 몽골 등 해외 뷰티헬스케어사업을 하면

중간고사맞이 간식 나눔 행사 열려

본교는 지난 10월 18일 중간고사 기간을 맞아 푸드트럭을 설치해 학생들에게 음식을 나눠 주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학생들에게 한 개씩 배부된 교환권으로 와플, 토스트, 꼬치, 스테이크, 김밥 등을 선택할 수 있었으며 추첨권이 포함돼 있어 소정의 상품도 받을 수 있었다. 이상한 총장도 직접 이벤트에 참여해 학생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학생들을 응원했다. 이상한 총장은 "시험기간 학생들을 위로하고 응원하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기획했다"며 "다 함께 힘내자는 의미"라고 밝혔다.

본교 평선베이(주)와 MOU 체결

본교는 지난 10월 17일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전문업체인 평선베이(주)와 공동 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MOU 체결과 함께 본교는 평선베이(주)로부터 31억 원 상당의 동역학 생산 소프트웨어, '리커다인' 프로그램을 기증 받았다. '리커다인'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자동차와 건설기계, 사무기기, 로봇 설계 등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상한 총장은 "이번 MOU가 단순한 기증으로 끝나지 않고 교육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사회가 발전하는데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북구 선녀축제 지원

지난 10월 16일 한성대가 후원한 제6회 삼선동 선녀축제가 호황을 이뤘다. 이상한 총장과 김영배 성북구청장,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선녀축제는 주민의 평화와 화합, 소통을 기원하며 열리는 지역 행사다. 지역발전과 사회공헌을 위해 본교는 매년 후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축제 경품 지원과 함께 본교 학생들이 선녀·신선·시녀·가마꾼 등으로 퍼레이드에 참가했다. 댄스동아리인 'NOD'도 무대에 올라 주민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한성대 학생은 총 42명이다. 매년 축제에 참여하는 본교에 대해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성북구 소재 대학 중 협력이 가장 잘되는 고마운 학교"라며 "한성대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꿈을 함께 현실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지방 학생 위한 1박 2일 자유학기제 시행

본교는 지난 10월 11일부터 이틀간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백운중과 송학중 학생 총 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은 지방에서 올라오는 점을 고려해 1박 2일로 진행됐다. 애니메이션과 다문화체험 실습을 제공했으며 서울 시내 버스투어도 진행했다. 이번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통해 실용과 융합을 중시하는 우리 학교 학풍에 따라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앞으로도 지방 학생들이 견문을 넓힐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희망나루 다장애이동체험관 설치로 장애인 일상 체험

본교는 지난 10월 11일 희망나루 다장애이동체험관을 설치했다. 희망나루 다장애이동체험관

은 장애인이 일상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휠체어로 장애물을 피해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다장애 체험 ▲눈을 가린 뒤 오감의 변화를 체험하는 시각장애 체험 ▲저주파치료를 이용한 편마디장애(반신 마비)체험 등 총 3가지 부스가 설치됐다. 희망나루는 강이나 내, 또는 좁은 물길에서 육지를 연결하는 '나루'에서 시작된 말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제17회 외국인 한글 글쓰기 대회에서 다수 수상

지난 10월 4일 580돌 한글날을 기념해 세종대 왕기념사업회에서 주관하는 제17회 '외국인 한글 글쓰기 대회'에서 본교 7명의 학생이 수상을 했다. '외국인 한글 글쓰기 대회'는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들에게 학습 동기를 강화하고 민간 외교의 차원에서 한국과 참가국 사이의 우호 증진 기여에 목적을 둔 행사다. 대회에서는 띄어쓰기와 글자체 등을 예쁘고 정확하게 쓰는 것을 중점적으로 평가했으며 그 결과 본교 언어교육원 한국어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7명의 학생이 은상 및 동상, 입선 등 다수의 상

을 수상했다. 본교는 유학생들과 외국인들을 위한 전문화된 교육과 각종 문화체험 행사, 한국어 뽐내기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어과정 외국인 유학생 앰버서더 결연식 진행

본교는 지난 9월 28일 교내 미래관 D.L.C룸에서 '제 24기 한국어과정 외국인 유학생 앰버서더 결연식'을 진행했다. 앰버서더는 봄과 가을, 일 년에 두 번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2005년 시작돼 1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행사이며 이번 가을 24기를 맞이했다. 이날 행사에는 7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학부생이 참여한 가운데 결연식을 통해 11월 30일까지 서로를 깊이 알아가며 소중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인연을 맺게 됐다.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시작된 결연식에서는 새로이 짝지어진 앰버서더와 외국인 유학생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활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24기 앰버서더와 외국인 유학생들은 이번 앰버서더 활동 기간인 11월 30일 이후에도 오래도록 즐겁게 추억할 수 있는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나아가길 기대하며 행사를 마쳤다. 본교 언어교육원에서는 한국어과정에 입학하는 유학생들과 외국인들을 위한 각종 문화체험 행사와 한국어 뽐내기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 운영 중이다.

Hansung News



제12회 한성공학경진대회 성료

본교는 지난 9월 27일부터 양일간 교내에서 '제12회 한성공학경진대회'를 열었다. 올해 12회째를 맞은 이 대회는 학생들이 평소 교과 수업을 통해 배운 기술과 체험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창조적인 작품을 제작하도록 해 창의적이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한성공학을 육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학생들이 담당 교수 지도로 교육과정과 비교과과정을 통해 기획·제작했다. △가상현실 △애플리케이션 △로봇 △웹 콘텐츠 △오프로드 자동차 등에 관한 25개의 작품과 논문 2점이 제출됐다. 대상은 '가상현실을 이용한 주차 시뮬레이션'을 출품한 유창훈(컴퓨터공학3), 홍순일(컴퓨터공학2), 이원경(멀티미디어공학4) 학생에게 수여됐다.

본교-성북 미래나눔학교, 멘토링 사업 추진

본교는 지난 9월 20일 리더십·봉사정신·애항심을 갖춘 대학생 인재 양성,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양질의 교육 지원을 위해 '한성대-성북 미래나눔학교' 멘토링 공동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본교는 우수 인재를 위한 장학금 확보·지원, 장학생을 위한 기부자 멘토단을 구성한다. 성북구청은 학습센터 선정, 지원, 교육 등을 위한 재능활동 지원과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성북구 관내 인프라 및 시설자원을 담당한다. 본교는 이번 '한성대-성북 미래나눔학교' 멘토링 사업 참여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제34회 패션디자인 전공 졸업 패션쇼 개최

본교는 지난 9월 9일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34회 패션디자인 전공 졸업 패션쇼'를 개최했다. 해마다 열리는 졸업작품 패션쇼는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시도와 도전으로 주목받아 왔으며 예비 패션전문인으로서의 성장이 기대되는 멋진 작품들이 탄생하였다. 올해는 에스파니아어로 '많은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자라는 뜻의 'HWICK(획)'이라는 단어를 주제로 하여 '여행, 리조트룩'을 주요 테마로 진행했다. 또한, '획'이라는 소리는 '획'하고 떠나보자라는 이중적인 단어 의미로 사

용하여 지리적, 시간적, 문화적으로의 여행을 재해석하여 다양한 소재와 기법으로 패션을 표현했다. 안현주 패션디자인전공 주임교수는 '이 패션쇼는 졸업생들이 신인 디자이너로의 첫 걸음을 떼는 자리이며 기획에서 제작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경험해 봄으로써 앞으로 패션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디원 시각디자인전공 최재훈 학생, 세계 광고 공모전 다수 수상

본교 부설 디자인아트평생교육원(한디원) 시각디자인전공 3학년 최재훈 학생이 권위 있는 국제 광고 공모전에서 잇달아 수상했다. 최재훈 학생은 '세계 3대 광고제' 중 하나인 칸느 국제광고제 퓨처라이온, 스위스 골든 몬트리 어워드, 미국 크리에이티비티 어워드 등 다양한 국가에서 개최한 광고 공모전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미국 크리에이티비티 어워드에서는 플래티넘(winner) 1작품, 은상 (silver winner) 2작품 등 총 3개의 작품이 동시에 선정돼 아트 디렉터로서의 역량을 크게 인정받았다. 본교 한디원은 디자인 분야만을 특성화한 대학부설 교육기관으로 실내디자인, 시각디자인, 산업디자인학, 디지털아트(영상)학, 패션디자인학, 패션비즈니스학, 미용학(정규/특별) 등 총 7개 전공이 운영되고 있다.



'제2회 IPP 장기현장실습 성과발표회' 개최

본교는 지난 8월 31일 '제2회 IPP 장기현장실습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IPP 장기현장실습(이하 IPP)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아래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산업체 현장에서 4개월 이상 장기간에 걸쳐 현장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한 기업연계형 실습 제도다. 이번 성과발표회에는 이종훈 한성학원 이사장·이상한 총장·김동호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동부지사 지사장·IPP 사업에 참여한 기업 대표 등 관계자와 60여명의 학생이 참석했다. 이날 지난해부터 2년 연속 한성대 IPP사업에



참여한 기업에는 감사패가 전달됐으며, 65명 IPP 수료생은 한성대와 기업의 공동명의 이수증을 받았다. 이상한 총장은 "IPP 장기현장실습을 통한 기업현장에서의 생생한 경험은 학생들이 기업에 입사할 때 큰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사회 각 분야에서 '한성대 졸업생이 뛰어나다'는 인식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교는 지난해부터 IPP사업을 실시했으며, 올해 1학기에는 총 30개 기업에 16개 학과 65명 학생이 참여했다.

본교 (주)한샘과 '취업 아카데미' 개설

본교 디자인아트평생교육원은 (주)한샘과 지난 8월 30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년취업 활성화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한샘 취업 아카데미'를 개설하기로 합의했다. 취업 아카데미 교육은 총 3개월 과정으로 구성되며 1년에 4번 개강한다. 교육 과정에는 (주)한샘 OJT(신입사원 직무교육) 교육과 기초 디자인교육이 진행되고 2016년 10월 첫 1기생 30명을 모집한다.

이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에게는 한성대 총장명의 수료증과 (주)한샘이 인정하는 수료증이 동시에 발급되며 적정기준이상 성적으로 수료하는 교육생 전원에게는 한샘 대리점으로 입사할 수 있는 특전도 주어진다.

한국어문 권송연 학생, 미스유니버스 코리아 2위 수상

한국어문학과 권송연 학생이 지난 10월 23일 웨라톤 그랜드 워커히에서 열린 '미스유니버스 코리아' 결선 대회에서 후보 15명 중 2위를 차지했다. 이번 미스유니버스 대회 실황은 유튜브를 통해 세계 각국에 공개되었으며, 한국 네이버, 미국 미스유니버스, 영국 미스월드에도 생중계됐다. 케이블 채널인 K스타에서도 방송했다.



홍수민 학생, 대학만화애니메이션 최강자전 대상 수상

본교 홍수민(애니메이션·제품디자인전공 12학번)학생이 지난 10월 6일 대학만화애니메이션 최강자전에서 만화부분 대상을 수상했다. 수상 작품은 '달을 보는 개로, 고양이로 보았던 순간을 추억하는 내용의 웹툰이다. 홍수민 학생은 특전으로 상장과 상금, 그리고 해외 연수 기회를 받았다. 홍수민 학생은 현재 '육탑방 마왕성'이란 작품을 카카오페이지에 연재하고 있다.

50.

한성 서포터스

음식 한 그릇에 담긴 소박한 진심

음식은 정성이라 했다. 그만큼 만드는 이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저마다 맛에 대한 기준이 다르겠지만, 건강한 식재료와 정성 담긴 손맛이 음식 속에 골고루 배어있어야 '맛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오랜 단골 식당으로 한성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을 뿐 아니라 수익금의 일부를 학교 장학 기금으로 기부한 한성 서포터스 3곳을 소개한다.

푸짐한 한상차림에 묻어나는 우직한 고집 - 성한가든



'성한가든' 하면 한성대입구역 주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22년째 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터줏대감이다. 외지인이 길을 물을 때도 '성한가든을 기준으로' 알려주는 것이 편리하다니 이만하면 이 지역의 랜드마크라 해도 과언이 아닐 터. '한성인 후원의 집' 이기도 한 성한가든의 김영채 사장은 한성대를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된 만큼 학생들에게 작은 성의나마 보탬이 되고자 후원금 기부를 시작했다고 한다. "인근에 대학교가 있어서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고 그 덕분에 22년 간 이 자리에서 장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뿐만 아니라 교수님들이나 교직원들도 잊지 않고 찾아주시는데 저도 학교를 위해 뭔가 하는 것이 도리라 생각했습니다. 더 붙어 사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성한가든을 찾는 고객들이 꼽는 랭킹 1위 메뉴는 돼지갈비. 김영채 사장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수입이 아닌 국산 돼지고기를 고집한다. 맛이 확 다른 것은 아니지만, 자주 먹어본 단골들은 그 차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무엇보다 식당은 변함없이 일관된 음식 맛을 유지해야한다는 것이 사장님의 경영 철학이기에 국산재료 사용을 철칙으로 하고 있다. 이 집 돼지

갈비를 돋보이게 하는 또 하나의 부재료는 쌈 채소. 고기 집에서 상추 서너 장 올리는 것이 제일 이해가 안 된다는 김영채 사장은 푸짐한 상차림을 좋아해 10여 종의 싱싱한 채소들을 바구니 한 가득 채워야 직성이 풀린다고 한다. 이집을 오면 꼭 챙겨 먹어야 하는 것이 후식으로 나오는 미니 냉면. 한두 젓가락 후루룩 먹을 정도의 미니 사이즈지만 고기 먹은 뒤 느끼해진 입맛을 깔끔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서울 시내에서 처음으로 냉면을 후식으로 서비스한 이가 바로 김영채 사장인데, 이는 30년 가까이 음식점을 경영하며 지금까지 지켜온 그만의 고집이기도 하다. "음식점은 모름지기 손님 기분이 들어올 때와 나갈 때가 똑 같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음식 맛이 변함없이 좋아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푸짐한 양, 종업원들의 친절한 서비스 등 모든 조건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채 사장의 이유 있는 고집 덕분에 성한가든을 지금처럼 '장수식당'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앞으로도 변함없는 맛과 양으로 승부하는 경쟁력 있는 맛집으로 남길 기대한다.

메뉴 : 돼지갈비, 소갈비, 등심, 갈비탕, 김치전골 등 주소 :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40
전화번호 : 02-745-7052 영업시간 : 매일 11:00 ~ 22:00



역사와 전통이 증명하는 중식당의 품격 - 진아춘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대학로 중국집' 라고 치면 연관검색이 되는 곳. 'since 1925' 라 쓰인 간판에서 고색창연한 전통과 역사가 느껴지는 아주 오래된 중식당이 바로 진아춘이다. 34년간 식당을 이끌어 온 박숙경 사장이 한성대를 후원하게 된 데에는 이상한 총장을 비롯해 한성인들과의 아주 오랜 인연에서 비롯됐다.

"대학로에서 오랫동안 영업을 했기 때문에 인근 대학가 교수님들이 오랜 단골들이시죠. 제가 오래 배운 이상한 총장님은 두루두루 잘 챙겨주시고 배려심이 깊은 따뜻한 분이세요. 그런 고마운 분께 도움이 되는 일을 찾다가 기왕이면 의미 있는 일을 하자는 마음에 후원금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작으나마 보탬이 된다면 저희로서도 기쁜 마음일 것 같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부끄럽다고 말하지만, 박숙경 사장은 적십자, 서울대학병원 어린이병동 등 많은 단체에 매달 기부금을 전달해오고 있다. 15년 전부터 시작한 일이다 보니 그동안 후원단체 수도 많이 늘어난 것이 사실. 매달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기부하는 일이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박숙경 사장은 내가 좀 덜 쓰고 필요한 곳에 더 쓴다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하다고 말한다. 식당에 매인 몸이라 직접 나가서 봉사활동을 할 순 없

으니 기부를 통해서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것이 그녀의 생각이다.

식당마다 시그니처 메뉴가 있을 법도 한데, 진아춘의 오랜 단골들은 메뉴를 고르기보다는 박숙경 사장이 알아서 가져 오도록 믿고 맡기는 편이다. 연령층별로 선호하는 요리도 다양해서 중장년층은 깔끔한 전가복을, 젊은 층은 두툼한 고기가 일품인 탕수육을 즐겨 찾는다고 한다. 한자리에서만 줄곧 영업을 해온 오래된 가게다 보니 진아춘은 단골 고객 위주의 영업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꾸준히 이곳을 찾아주는 고객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맛은 물론, 재료 선별에도 더 신경을 기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음식 맛을 즐기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

"우리 식당은 광고를 유별나게 하거나 TV에 나왔다고 과시하는 일을 일체 하지 않아요. 유명 맛집이라고 찾아오는 분들이 자리를 차지하면 정작 우리 손님들을 대접할 수가 없잖아요. 당장 매상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오랜 단골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이 바로 진아춘이 대학로에서 '의리 가게' 로 통하는 이유기도 하다.

메뉴 : 짜장면, 삼선짜장, 탕수육, 전가복 주소 : 서울 종로구 대명1길 18 전화번호 : 02-765-5688
영업시간 : 매일 11:30~21:00 (15:00~16:30 Break Time), 일요일 휴무 예약필수



정성 가득 우려낸 담백하고 깔끔한 맛 - 손가네

IMF의 높은 파고는 평범한 가정주부를 강인한 국수집 사장으로 변모시킬 정도로 모질고 험했다. 맛있는 국수와 담백하고 깔끔한 맛의 설렁탕을 끓여내는 손가네가 성북동을 대표하는 맛집으로 자리 잡기까지 참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었다고 한다.

"그때는 다들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잖아요,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판이어서 목숨 걸고 시작한 것이 칼국수 집이었어요. 초창기에 맛이 없다는 손님들이 많아 반죽을 버려가며 다시 하고 또 버리고 다시 하고를 반복했었어요. 그렇게 도전하고 배워가며 일 년을 버티니 서서히 손님들이 칭찬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시작해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켜오고 있는 손가네는 주력 메뉴는 곰탕 국물에 국수를 넣은 곰국수였다고 하는데, 점차 국수문화는 사라지고 이제는 설렁탕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손가네 설렁탕은 깔끔한 맛이 특징. 24시간을 꼬박 끓여낸 진국이지만 담백하고 깔끔해 설렁탕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거부감 없이 먹을 정도로 수준급의 맛을 자부하고 있다.

한옥을 개조해 식당으로 쓰다가 얼마 전 현대식 건물로 새 단

장하게 되었는데, 유현숙 사장은 새롭게 문을 연 날 이상한 총장이 축하화분을 보내주어서 무척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이에 보답하는 마음에 한성대 후원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근처에 대학이 많아 어떤 날은 여기가 대학 구내식당인가 할 정도로 대학교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기도 했어요. 다들 감사하죠. 우리 메뉴가 학생들 호주머니 사정을 감안하면 가격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교수님이 수고했다고 제자들을 데리고 오기도 하고, 부모님과 함께 오는 학생들도 많아요. 특히 졸업식이 있는 날에는 가족이 와서 불고기 파티를 하기도 합니다."

유현숙 사장은 요즘처럼 힘든 시대에 고군분투하는 대학생들을 보면 안타깝고 또 마음이 아프다며 지금은 너무 힘든 세상이라 말하기조차 어렵지만 살다보면 분명 좋은 일도 생길 것이라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단다.

"자기가 한 것만큼 돌아오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지금 힘들어도 견디면 분명 좋은 날이 올 거라 믿어요. 한성인 여러분, 열심히 도전하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좋습니다. 힘내세요, 파이팅!"

메뉴 : 곰국수, 설렁탕, 갈비탕, 도가니탕, 도가니전골, 곰창전골, 수육 주소 : 서울 성북구 성북로 15길 8
전화번호 : 02-743-8937 영업시간 : 10:30~21:30, 2, 4번째 일요일 휴무

2017학년도 한성대학교 정시 모집요강

1. 전형요약 및 주요 사항(변경사항)

| 2017학년도 정시 전형요약 및 모집인원 |

구분	정원내/외	전형명	모집인원(명)		(B)-(A)	비고	
			2016(A)	2017(B)			
정시	정원내	가군	수능위주	281	120	-161	
			실기위주	43	36	-7	
		다군	수능위주	197	218	21	
			실기위주	67	28	-39	
	정원외	가군	농어촌학생	2	1	-1	예술학부(동양화 1명)
정시 모집인원(비율)			590 (35.2%)	403 (24.8%)	-187	*수시 모집인원 증가에 따른 정시 모집인원 감소	

| 2016학년도 대비 2017학년도 정시 주요 변경사항 |

모집 시기	변경사항	2016학년도				2017학년도					
학사구조개편	모집단위/인원변경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참조									
정시	미술 실기 [동양화, 서양화, ICT디자인학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변경	가군	회화과(일반학생)	50%	50%	가군	동양화, 서양화(일반학생)	40%	60%		
			회화과(농어촌)	50%	50%		동양화(농어촌)	40%	60%		
		다군	융복합디자인학부 (주간/야간)	50%	50%	다군	ICT디자인학부 (주간/야간)	40%	60%		
			인테리어디자인학과	50%	50%						
예술학부(무용) 가군 통합 모집	한국무용, 현대무용 - 가군 / 발레 - 다군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 가군 통합모집									
정시	실기고사 - ICT 디자인학부 (주간) 변경	모집단위	고사과목	모집인원	모집단위	고사과목	모집인원				
				응복합 디자인학부 (주간)	사실 + 응용표현		18	ICT디자인학부 (주간)	사실 + 응용표현	20	
				상황표현	11		상황표현	1			
		발상표현	11	발상표현							
응복합디자인학부 (야간)	상황표현	8	ICT디자인학부 (야간)게임 일러스트레이터	게임상황표현	-	8					
변경	실기고사 대상 : 정물	실기고사 대상 : 정물 사진 이미지									
정시	대학수학능력 시험 성적 영역별 반영비율 및 가산점 변경	모집단위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모집단위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인문대 / 패션학부	30%	20%	40%	10%	상상력 인재학부	30%	30%	30%	10%
		사과대	30% 또는 20%	40%	10%						
		공과대	20%	40%	30%	10%	예술학부, ICT디자인학부 (실기)	40%	-	50%	10%
		예술대 (실기)	40%	-	50%	10%					
공과대학 야간학과 수학A / 수학B 교차지원 허용 및 수학B 가산점 10점 부여						- 계열구분없이 수능 100% 선발 - 수학기형 응시자 10점 가산점 부여					
한국사 영역 반영	-	한국사 영역 등급별 가산점 부여 (세부내용 P54 참조)									

| 2017학년도 정시 성적 반영 방법 |

모집 구분	전형유형	모집단위	대학수학능력 시험 성적	실기 고사	서류 전형	면접 고사	반영비율 (총점)	비고	
가군	일반학생	상상력인재학부(주간)	100% (1,000점)	-	-	-	100% (1,000점)		
		예술학부 (동양화, 서양화)	40% (400점)	60% (600점)	-	-	100% (1,000점)		
		예술학부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40% (400점)	-	-	-	100% (1,000점)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주간) 사회과학부(주간) 글로벌패션산업학부(주간) IT공과대학(주간)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주간)	100% (1,000점)	-	-	-	100% (1,000점)	♣	
		농어촌학생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주간) 사회과학부(주간) 글로벌패션산업학부(주간) IT공과대학(주간)	100% (1,000점)	-	-	-	100% (1,000점)	♣
다군	일반학생	예술학부(동양화, 서양화)	40% (400점)	60% (600점)	-	-	100% (1,000점)	♣	
		특성화고교 졸업자	사회과학부(주간) 글로벌패션산업학부(주간) IT공과대학(주간)	100% (1,000점)	-	-	-	100% (1,000점)	♣
		상상력인재학부(야간)	100% (1,000점)	-	-	-	100% (1,000점)		
		ICT디자인학부(주간/야간)	40% (400점)	60% (600점)	-	-	100% (1,000점)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야간) 사회과학부(야간) 글로벌패션산업학부(야간) IT공과대학(야간)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야간)	100% (1,000점)	-	-	-	100% (1,000점)	♣	
특성화고교졸 재직자	사회과학부(야간)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야간)	-	-	1단계 : 학생부 + 자기소개서 100%	2단계 : 1단계60% + 면접40%	100% (1,000점)	♣		
다군	농어촌학생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야간) 사회과학부(야간) 글로벌패션산업학부(야간) IT공과대학(야간)	100% (1,000점)	-	-	-	100% (1,000점)	♣	
		ICT디자인학부(주간)	40% (400점)	60% (600점)	-	-	100% (1,000점)	♣	
		특성화고교 졸업자	사회과학부(야간) 글로벌패션산업학부(야간) IT공과대학(야간)	100% (1,000점)	-	-	-	100% (1,000점)	♣
다군	특성화고교 졸업자	ICT디자인학부(주간)	40% (400점)	60% (600점)	-	-	100% (1,000점)	♣	

※ ♣ 모집단위의 경우 수시모집 미충원시 선발

| 일반학생 전형(수능) |

모집구분	개설학부트랙(전공)	정시(가군)	정시(다군)
상상력인재학부	- 개설학부트랙(전공) 영미문학, 글로벌언어정보, 한국어교육, 문학문화컨텐츠, 글로벌역사, 역사문화컨텐츠, 정보문화, 라키비움비즈니스 - 개설학부트랙(전공) 국제통상, 글로벌비즈니스, 경제·산업분석, 금융·데이터, 공직진출, 정책관리, 부동산자산관리, 스마트그린산업, 벤처경영, 기업경영, 회계·재무경영 - 글로벌패션산업학부 패션마케팅, 패션디자인 - IT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 모바일소프트웨어, 빅데이터, 디지털콘텐츠및가상현실, 웹서비스 기계전자공학부 : 기계설계, 기계자동화, 전자, 정보시스템 IT융합학부 : 지능형로봇, IoT프로덕트, 사이버보안, ICT융합엔터테인먼트 스마트경영공학부 : 스마트시스템경영, 스마트 생산물류, 스마트융합컨설팅	상상력인재학부 (주간) 120명	상상력인재학부 (야간) 218명
	- 디자인대학 ICT 디자인학부: 뉴미디어광고·커뮤니케이션, 영상·애니메이션, 제품·서비스디자인, 패키지&브랜드디자인, 인테리어·코디디자인, VMD·전시디자인, 환경·전시무대디자인		

※ 상상력인재학부의 경우 단과대학/학부 소속이 없는 자율전공개념으로, 고교 문·이과 계열 구분없이 수능 100%로 선발, 2학년 진학 시 단과대학/ 학부/ 트랙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단, 정시 다군(야간) 모집단위의 경우 디자인대학 선택 제한).
 ※ 입학후 전공(트랙)선택시 관련 학사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학생 전형(실기) |

모집구분	개설학부트랙(전공)	정시(가군)	정시(다군)
예술학부	동양화, 서양화,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동양화(주간): 13명 동양화(주간)농어촌학생전형: 1명 서양화(주간): 13명 한국무용(주간): 3명 현대무용(주간): 3명 발레(주간): 4명	
디자인대학	- ICT 디자인학부 뉴미디어광고·커뮤니케이션, 영상·애니메이션, 제품·서비스디자인, 패키지&브랜드디자인, 인테리어·코디디자인, VMD·전시디자인, 환경·전시무대디자인		정시다군 - ICT 디자인학부(주간): 20명
	ICT 디자인학부 (야간) 게임 일러스트레이션		정시다군 - ICT 디자인학부(야간): 8명

※ 2017학년도 수시 미충원 모집단위 및 인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정시전형의 최종 모집인원은 수시 등록 마감 후, 2016년12월30일(금) 본교 입학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스스로 찬란한 빛이 되다

상상력은 스스로의 진가를 드러내는 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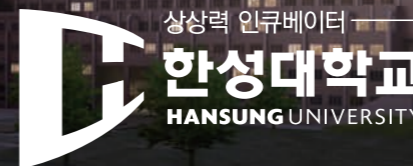
다이아몬드는 빛이 있을 때 비로소 세상에 본연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한성인이 빛나는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상상력 인큐베이터 한성대학교는 상상력으로 인해 기어코 세상의 빛이 되는 최고의 인재를 키웁니다.

한성대학교가 전공트랙제로 201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4개 단과대학 총 40여 개 트랙으로 구성된 학제 개편을 통해 1학년 때 다양한 학문 분야를 체험하고 2학년 진학 시 자신의 적성에 맞는 2개 이상의 복수트랙을 선택할 수 있는 한성대학교 전공트랙제. 다양한 전공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학생 스스로 적성에 맞는 진로탐색을 위한 인재맞춤형제도입니다.

- 》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8개 트랙
- 》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11개 트랙
- 》 예술대학 ICT디자인학부 7개 트랙
- 》 IT공과대학 14개 트랙

2016년 6월 완공된 미래형캠퍼스 '상상관'



2017학년도 한성대학교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6. 12. 31(토) 10:00 ~ 2017. 1. 4(수) 17:00
- 서류접수 : 2017. 1. 5(목) 17:00까지 • 입시상담 : 02)760-5800
- 자세한 사항은 입학 홈페이지 <http://enter.hansung.ac.kr> 참조